朝鮮日報
夕刊 十二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英蘇海軍協定은 蘇聯海軍의援助?

英의對日對獨牽制策의一端 日本海軍當局見解

【東京電話同盟】英蘇海軍協定이 事實上 成立되어 蘇聯政府는 右協定成立後 三萬五千噸級 主力艦三隻을 建造할 希望을 가지고잇다는 報道에 對하야 日本海軍部內의 所見을 綜合하건대 如左하다

一、英蘇海軍會談은 英米佛三國條約에 蘇聯을 加盟케하려는 目的으로 開始된것으로서 今日까지 艦船의 質及量의 問題에 關하야 아모런 報道도 傳하지안는바를 보건대 結局 英蘇海軍協定은 質及量을 制限하는것이 아니오 오히려 英國이 蘇聯邦의 海軍再建에 某種援助를 與하야 蘇聯邦의海軍擴張을 主眼으로 하는것인지도 모른다

一、即蘇聯邦은 明年度에 第二次五個年計劃을 終了할터이므로 同計劃遂行으로 陸軍及空軍은이를 擴充整備할수잇스나 海軍은 遲延된 感이잇스므로 第三次五個年 計劃에서는 海軍擴充에 主力을 傾注할必要가잇다 그리고 蘇聯邦當局도 이미 이것을 言明하엿다

一、英國은 蘇聯邦의 海軍을 某程度로 再建擴張케함에依하야 발틱海의 勃興途上의 獨逸海軍과 拮抗케하고 또 極東海面에서 對英米패리티를 要求하는 日本海軍을 牽制하려고 企圖하고잇는것은 容易히 想像된다

그런故로 英蘇海軍協定은 制限協定이라기보담은 오히려 蘇聯邦의 海軍擴張援助協定이라면이 妥當할것이다

蘇大使月末歸國 廣田首相과會見

【東京電話同盟】去昭和八年三月 赴任한 駐日蘇聯大使 유레네프氏는 今回 本國政府의 訓令에依하야 約三個月의 豫定으로서 來二十五日 東京發本國에 歸還하기로되엇다 右에압서 유레네프大使는 十日 日蘇交涉에 關하야 廣田首相을 訪問할터인데 同日은 歸國人事外에 日蘇間의 全面的諸問題調整에 關하야 原則的意見交換을 할모양인데 이 會談은 重視되고잇다 그런데 今回 유레네프大使의 歸國은 日蘇漁業交涉 滿蘇國境紛爭處理等의 諸懸案이 進展될 可望이업고 또 最近 日英接近의 空氣가 濃厚하게되어 將來의 情勢는 豫斷을 不許하므로 此際에 同大使를歸國케하야 그詳細를聽取하고 對日對英의 方策을 樹立하기爲함이라고 보며 時節이 時節이라 注目되고잇다 그리고 有田外相과의 會見은 目下 未定이다

日滿條約公布

【東京電話同盟】十日 新京에서 署名調印을 了한滿洲國의 治外法權一部撤廢에 關한 條約은御裁可를 經하야 十二日 官報로서 公布되엇다

米、原則的으로 英國要請承認

驅逐艦超過噸數問題

【倫敦十一日發同盟】倫敦駐箚米國大使參事官 아서톤氏는 十一日午後 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驅逐艦超過噸數保有와 巡洋艦流用에 關한 英國政府의 要請에 對한英國政府의 回答을 通達하엿다 回答內容은 發表되지안엇스나 米國政府는 原則으로 英國政府의 要請을 承認하고 左의 意向을 發表하엿다고 解釋된다

一、英國政府가 驅逐艦超過噸數四萬噸을 保有하고 甲級巡洋艦四隻을 乙級巡洋艦으로 流用하고십다는 要請에 對해서는 米國政府는 原則으로 異議는업다

一、但 英國政府는 條約改訂을 要할과 如한 方法에 依하지 안코 現行倫敦條約第二十一條에스카레터條項의 援助에依하야 右目的을 實現하기바란다

以上 米國政府의 回答에 對하야 英國政府는 暫時 決定을留保하고 또 日本政府의 正式回答을 기다려 態度를 決定할方針이라고 보인다

殺風景의 에國首都

에디오피아首都 아디스아베바市가伊太利軍에 占領되든後 掠奪、暴行이晝夜로 繼續되야 首都는 暗黑街化되엿다함은 그사이 屢屢히 報道된바이어니와 寫眞은 탕크隊를 宮殿門前에 配置하고 舊王宮을 占領한 伊太利遠征軍 本部로서 그 무시무시한 光景은 이寫眞을 通하여서도 알수잇다

中央軍 戰備完了

【上海十一日發同盟】西南軍의湖南侵入에 對하야蔣介石氏는 表面 끗까지 和平解決을 目標하고 麾下 各將領의 主戰說을 抑壓하고 政治的工作을 策하고잇는데 戰鬪를 開始할 境遇에는 一擧에 西南軍을 殲滅하려고 着着 必勝의 布陣을 急히 行하고 잇서서 이미 貴州 四川 湖北各省에 移動을 了하고 一方 杭州의 飛行部隊를 漢口에 集結하고 또 十日 張學良氏를 西安으로부터 招致하야 張學良麾下의 空軍도 漢口에移駐케하기로되엇다 이리하야 漢口를本據로 中央軍은 命令一下空陸呼應하야 出動하야 形勢를示하고잇다

中央軍指揮次 何氏長沙에飛行

【南京十一日發同盟】西南軍의湖南侵入에 備하야軍政部長 何應欽氏는 스스로 湖南에 進出하야 中央軍을指揮하기로決定하고 十一日午後四時 飛行機로 南京飛行場을 出發하야 長沙에 向하엿다

中央軍續續南下

【上海十一日發同盟】中央에서는 西南軍의北進으로 漢口、長沙間의列車運轉을停止하고 一般運輸를 休止하엿다 그리고 飛行隊를 漢口에三隊 長沙에 二隊增加하고 다시 陸上部隊를 山西省에 移駐케하야 共產軍討伐에 當케하고잇는바 中央軍第四十三 第九十七師에 漢口轉駐를 命하고 第四十三師는 이에漢口에到着하얏다 그리고 第一、第二師도 湖南省南部에南下하엿다

一旦開戰之時엔 一擧西南軍殲滅

表面으론平和解決努力하나 命令一下에空陸動員

伊太利新任外相 强力外交方針宣明

【羅馬十一日發同盟】뭇소리니伊首相은 聯盟理事會와 總會를앞두고 東阿遠征工作確保의 第一着手로 女婿차노伯을 外相에起用하는同時에 他方 바드리오將軍을 再次 參謀總長에 專任시켜 外交軍事兩方面으로부터 對內外政策의 充實을 決意하게되엇다 即 新外相차노伯은 聯盟에 關한限 從來의 方針을 踏襲하고

一、에디오피아代表가 出席하는限 代表를 派遣치안는다

一、또 聯盟總會가 制裁案을 撤回치안흘때에는 斷乎 聯盟을 脫退한다

는 意圖를 가진것으로 보이며 또新外相은 獨、波、墺、匈의四國提携를 策하야 舊三國同盟의事實上再建을 圖하는同時에 東亞의友邦 日本政府와 提携를 策할것이아닌가 보인다 勿論 伊太利政府當局은 右觀測을 荒唐無稽하다고 斷하고 新外相下에서는 外交方針의 基調에는 變化가업다고 陳辯하고잇는데 外交界에서는 以上의 觀測의 根據로 左의 事實을指摘하고잇다

차노新外相은 一九三四年四月本國에 召還되기까지 前後三個年 中國에 在勤하야 極東情勢에 通曉하고 特히 東亞의 安定勢力인 日本政府의地位를 充分認識하고잇다

新外務次官 바스치니氏는 前後 三個年갈소우 駐箚大使이엇다 그래서 獨、波兩國間의 諸懸에 通曉하고 特히 中歐情勢에 精通하엿다

以上의 新政策에 基하야 차노外相은 陣容整備를 企圖하고스비치 前外務次官을 倫敦駐箚大使로 알로이지聯盟代表를 巴里駐箚大使로 그란디氏를 羅馬駐箚大使로 起用할것이라고 觀測하고잇다 外交陣容强化와서로 呼應하야 參謀總長은 뭇소리니首相의 附託에 基하야 國軍攻防戰略의 根本的整備를 斷行하야 國際危機에 備할方略이라고 보인다 바드리오元帥는 特히 聯盟總會에 當해서는 國軍四十餘個師團을 北境의 國境地帶에 集結하야 一大示威를 敢行하고 聯盟을 牽制할 作戰이라고 傳한다

蔣氏의勸告電報 西南派拒絕返電

【廣東十一日發同盟】陳濟棠、李宗仁氏等 西南派最高首腦部는 十一日午前八時 부터 廣東市梅花村의 陳濟棠氏公館에 集合하야 約三時間동안에 亘하엿는데 十日附蔣介石氏의

一、廣東、廣西聯合軍의北上阻止

一、兩軍의 原駐地歸還勸告電報에 關하야 鄭議한結果 右는 內外에 對한 蔣介石氏의 欺瞞策에 不過하다고 廣東軍의 前進速度를 一層 빨리하야 衡陽을 中心으로한 中部湖南省에 兩廣軍主力部隊의 迅速한 展開를 圖하기로 決定하고 午後二時 蔣介石氏에게 如左한 返電을 發하엿다

中央은 全國民衆의 輿論에 聽從하야 敢然 對日抗戰主義를 中外에 宣布하는同時에 即時 全軍을 擧하야 出師北上의 途에 就하라 그러치안흐면 西南은 單獨抗日의 自由行動을 取할것이다

全滿總領事會議

【新京十一日發同盟】治外法權撤廢後의 諸問題協議次 召集된全滿總領事會議는 十一日午前九時關東軍司令部 講堂에서 開催되엇다 植田大使를 爲始하야 館員以下 全滿十八領事와 八領事館事務主任이 出席하야 植田大使의訓示가 잇슨다음 現地主任의法權問題에 對한 說明을聽取하고 條約案에 對한 一般的質疑가잇고 午後四時終了하얏다 十二日도會議를 續開하고 此等諸問題의審議를行할豫定이다

에디오피아總督更迭

【羅馬十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十一日 에디오피아總督更迭을 斷行하야 現總督代理그라치아니將軍을 總督에 昇任하고 總督바드리오將軍을 參謀總長에 任命令을發令하엿다

蘇聯中央執行委員會

【莫斯科十一日發同盟】蘇聯邦中央執行委員會는 十一日 크레므린宮에 幹部會를開催 憲法起草委員會議長 스탈린氏의 憲法草案에關한 報告를 聽取한後 다음決議를 採擇하엿다

一、憲法起草委員會의 提出에 關한 蘇聯邦憲法草案을 承認

一、憲法草案審議次로一九三六年十一月二十五日 聯邦蘇大會를 召集

三、憲法草案을公表하야 全國民의 討議에 附함

蘇聯邦憲法草案 十一日夜內容發表

【莫斯科十一日發同盟】共產黨書記長스탈린氏을 首班으로한 蘇聯邦憲法起草委員會는 前後二個年에 亘한 審議의結果 全文十三章으로된 新憲法草案을 脫稿하엿는데 幹部會는 右草案을 承認하고 來十一月二十五日부터 全蘇聯邦大會에 附議決定하기로되엇다 大會附託에압서 十一日夜 同草案의 內容을發表하야 全國民에게 討議케하엿다 草案內容은 如左하다

第一章 社會制度
第二章 國家制度
第三章 蘇聯邦國家權力의 最高機關
第四章 蘇聯邦의構成、各共和國國家權力의 最高機關
第五章 蘇聯邦의 行政機構
第六章 蘇聯邦構成各共和國國家行政機構
第七章 소베트社會主義文持共和國國家權力의 最高機關
第八章 國家權力의 司法機關
第九章 裁判所와 檢察制度
第十章 公民의 基本的權利와 義務
第十一章 選擧制度
第十二章 國家의 徽章、國旗와 首都
第十三章 憲法改正規定

對滿日農民移民計畫 二十個年에百萬戶

關東軍成案·中央과折衷開始

【新京十二日發同盟】日本農業移民의 今年度實績이 良好한데鑑하야 關東軍 拓務省 關東局 大使館 滿鐵及 滿洲國政府에서는 各各協力하야 二十個年 百萬戶의日本農業移民入植의 大規模에 依한 移民計畫案을 樹立하얏는데 日本中央部의 折衷을開始하고 다시現地에서는 本計畫의實現에 邁進하기로決定 十日及十一日의 兩日에亘하야 關東軍司令部會議室에서 在滿日本各機關代表 滿洲國政府로부터 移民關係 拓植司長 各移民團長 拓務省으로부터 派遣된 大野東亞課長 淺川技師等이 參集하야 關東軍이 立案한 右大移民計畫의 基本要綱을 檢討할 移民會議를 行하엿다 同會議에서는 關東軍案을 中心으로 移民地의 農政其他에 關한重要問題에關하야 意見을 交換하고 다시 各移民團長으로부터 體驗에 基한 意見을 開陳하야 多大한 成果를 거두고 同五時 閉會하엿다 그런데 現地機關으로서는 中央部와의 折衝과 協力하야 大規模의 本格的對滿移民計畫을 實現할것으로 觀測된다

佛下院特別委員會 政府提出法案審議

【巴里十日發同盟】佛國下院特別委員會는 十日午後 政府가 提出한 數法案을 審議하고 特히 團體協約權 一週四十時間制 有給休暇制等에 關한 勞働關係法案에 關해서는 十日深更까지 審議를 續行하야 그結果 團體協約權以外의 政府法案審議를終了하고 十一日午後下院本會議에 報告하기로되엇다

辭令

(慶北)總督府道理事官 李範昇
文官分限令第十一條第一項第四號에 依하야 休職을 命함
(平南)總督府郡守 李啓漢
任總督府道理事官(四等)
命慶尙北道在勤
(財務)總督府屬 洪憲杓
任總督府郡守(七等)
命平安南道江西郡在勤
(平南)總督府郡守 韓尙濂
命平安南道平原郡在勤
(咸北)朝鮮道立醫院醫官 岸田徵
依願免本官

八面鋒

◇對伊軟弱이란 罪名으로 이른無任相에게 자리를빼앗긴 前外相호어氏。

◇海相으로 復活하자 聯盟改造問題를듯고 이른外相에게 一矢를 發햇다。

◇『民主國、米國을 獨裁에서救出하라』고 大聲叱呼하는 前大統領후버ー氏가잇고。

◇制裁强化主張은 三伏暑中의狂亂相이라고 毒舌을吐하는 칠럿대 逸相도잇는가하면、

◇엇그제 成立된 佛國의人民戰線內閣이 勞働者法案으로 急進社會黨과 衝突을 免키어려운形勢。

◇벌의집건드린듯한 西半球의情勢를 摘記하야 東半球의 現況을 斟酌하는것도 한가지方法。

伊의威脅奏效! 英制裁撤回決意

制裁는撤回해도 에國合併不承認한다고 屈服하며도依然豪語

【倫敦十一日發同盟】英國政府는 聯盟總會를 압두고 外交機關을 通하야 여러번 佛國政府와 協議하야 危機打開策에 腐心中인데 伊太利政府의 强硬決意에 鑑하야 制裁案의 解除에 同意하는 同時에 에帝國의 併合에 關해서는 不承認政策을 堅持하고 聯盟의面目을 維持하기로 大略意見이 一致되엇다고 解釋된다 발드윈首相가튼이는 輿論의 反響을 念慮하야 十一日 英國下院에서 아직 政府의 方針은 決定되지안엇다는旨를 述하얏스나 이미 本方針은 決定되어 聯盟總會에서 制裁案解除를 根據로 左의 事實을 指摘하엿다고한다

一、智利政府는 制裁案撤回를希望하고 其他南米諸國政府도制裁를 繼續하는데 難色을 示하고잇다

一、伊에兩國間의 紛爭이 이미 終熄을 告한今日 制裁案은豫防 乃至 阻止策으로서의 意義를 喪失하엿다 따라서 專制裁政策으로 지금도 制裁案을 繼續하는것은 너무 危險하다

따라서 英佛兩國間의 協議終了와함께 聯盟總會는 特別委員會를 任命하야 制裁案의 善後措處를 協議케하야 同委員會의 報告를 기다려 드디어 制裁案撤回를 決定하게될것으로 보고잇다

獨逸서汪兆銘氏 一致團結을要望

二中全會出席은不能

【上海十一日發同盟】國民政府中央秘書處는十日附로 目下 獨逸에서 病療養中인 汪兆銘氏에게 對하야 急速 歸國하야 二中全會에 出席하도록 電請하엿다 右에 對하야 汪兆銘氏는 返電을 보내고 『健康이 不許하기때문에 出席이 不可能하나 西南側의 陳濟棠、李宗仁、白崇禧諸氏에게對하야 國際情勢에 鑑하야 中央과 一致團結하기를 希望한다는 長文電報를 보내다』는 言을 해왓다

바드리오元帥에 『아디스아베바公』

【羅馬十一日發同盟】伊太利皇帝엠마뉴엘陛下께서는 바드리오元帥의 에디오피아總督辭職에 當하야 特히 元帥의 에디오피아遠征의 功을 賞하야 『아디스아베바公』의 稱號를 授與하시엇다

人種抗爭益激化

【팔레스타인十一日發同盟】팔레스타인의 騷擾는 亞剌比亞人의 猶太人에 對한 惡感情에 端을 發하야 益益 激化되는 情勢에잇서 小衝突이 各處에서 反覆되고잇는데 亞剌比亞人은 戰術을 變하야 郵便遞送、電信電話의 切斷을 開始하야 팔레스타인市一帶는 全혀 混亂에 陷하고 罷業은 依然 繼續되어 埃及人各商店은 팔레스타인 政廳의 勸告에도 不拘하고 아직罷業을 繼續中이다 카톨릭信者亞剌比亞人은 政廳 壓迫에 抗議하기爲하야 카다베리大僧正에提訴하기로 決定하얏는데 一部方面의 反對로 다시 羅馬敎皇의 進出을 仰請하기로 決定하엿다

明年度豫算總額 三億五千萬에到達

昭和十年度 朝鮮總督府特別會計豫算은 豫算面에 比하야 大體稅收入一千萬圓、鐵道五百萬圓、遞信二千八百萬圓、專賣三百萬圓、印紙二百萬圓、遞信其他官業二百萬圓의 大增收를 示하고 잇서서 十一年度豫算도 四月一日以降의 實績에 徵하야 對豫算面增收를 보게될것은 틀림업슬것가튼데 上半期收入總計를 본다음이아니면 明年度의的確한 豫測이 서지는안는다고는하나 歲入總額에잇서서 적어도 二千萬圓程度의 增加를 할수잇슬것은確實視되고잇다 따라서明年度朝鮮豫算總額은 十一年度의三億二千八百萬圓에 比하야 二千萬圓增의 三億四千八百萬圓乃至 五千萬圓程度에 達할수잇스리라고 본다 朝鮮의 飛躍에 備하야 相當히 嶄新한 新規事業이 期待되고잇다

人事·集會

◆田邊信治氏(安城警察署長) 新任人事次來社

三好刷白粉 (삼호쇄백분)
綠陰에 어울니는 丹粧美는 小鳥와가치 生氣잇고 綠陰과가치 香氣롭고 꼿과도가치 아름다운 지금ー流行하는 季節化粧은 맵시나고 손쉬운 刷白粉으로
三好標白粉 三好크림 三好刷白粉 三好化粧水 三好固煉白粉 三好香油 三好香水 三好포마ー드 三好頰紅 三好口紅 コリア石鹼(고리아) 三一石鹼 鵬林石鹼
其他各社製品五十餘種
京城府昭格町一五九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光⑧一七二七 振京一五九五八

ラランポマード 라란포마도는
油質이大端히좋습니다.
香氣도大端히좋습니다.
그래서
大端히評判이좋습니다.

登錄商標 거북선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賣家 京城西大門町二丁目八六番地二層 店舖住宅附京城社稷町一八五番地 瓦家住宅希望者는 附近福德房에 問議하시오

漁具 極上麻 絲投網 五分目 二等金八圓也 四分目 二等金十圓也 捕鳥網 三間金三圓也 定價表進呈 漁具卸商 秋岡商會 京城明治町一丁目派出所前 電話本(2)四三九〇 振替京城一二一五六

失職은技術家에업다 ◇本校는實地로有用한技術家를養成할目的、學力年齡을不問하고臨時로入學許可함 ◎本科三個月卒業 ◎創立明治四十四年(就職紹介、學則發付) ◎校外課通信講義錄도發行함 ◎東京品川驛前二 公認東京寫眞學校

京城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杉山商會 高價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本(2)二〇〇七四番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新學期開始七月一日(晝夜)(學則要貳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又ハ編入學受驗準備 補缺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校舍大擴張◇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七月一日◇學則要三錢切手 第四十七回補缺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六〇番)

會葬謝禮 今般 舍弟洛俊死亡之際에는多蒙厚誼와多忙中遠路會葬하야주시여 感謝不已이옵기 玆에紙上으로謹謝하나이다 鎭津邑 新安洞二二 金京俊

韓氏膏藥 HANSHIKOYAK 中城韓藥局

살길업는在滿同胞 負擔만去益過重
갑작이課稅하야生活戰線에大異狀
法權撤廢後큰問題

만주국내의 치외법권의 철폐에 대하야는 이미일만량국간에 조약까지 체결되엇다 치외법권철폐중 오는칠월일일부터 과세권(課稅權)산업권(産業權) 금융권(金融權)이 철폐되는데 이에따라 재류하는 조선사람에게 미치는 바 영향은 지극히 크다한다 즉

◇……첫재로 과세권의 철폐에따라서는 금후조선인은 종래 서비를 토지열천지(一天地)소유에대하야 십일원의토엔을 부담할것을 비롯하야 호별세 영업세 량곡세(糧穀稅) 도살세(屠殺稅)가옥세등 각종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재래의 민회의부과금(賦課金)에비하면 상당히거액에달하야 갑작이부담이 과중하여진다

이외에또 하천사용권도 종래와는 달러서 금후는허가를 마터야 사용하게되므로 수전개척에 큰불편을 느끼게된다

◇……둘재로는 현재재만조선인의 유일한 금융기관인 금융회는 금융회사로 흡수(吸收)합병케 되므로 조선인에 대한 특수한 상공업자금과 농경자금의 융통을 엇지못하게될것이라한다

◇……셋재로는 국적문제특히 무적자의 취적문제를 비롯하야 교육문제 소작권의 확보문제등 중요한 문제가마타 이것이전부 다 재만조선인의 경제적사회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것인데 총독부외사과에서는 방금만주국 주만대사관 과등의문과 각시선후대책을 강구하는중에잇다한다 그러나 어떠케해결되든지간에 금후 재만조선인은 부담이 과중하여지고 각종경제적권익이 업서지거나 축소될것은 사실이므로 금후재만 조선인일백이십 만의의생활선상에는 큰이상이 생길것으로 주목된다

부터 대체방으로총을노하 땅재를다서 보개하엿다는것이다 정확에서는 그때부근을 배회하고 잇던 리유명(李有明)등에 멀통이 부락자도합피 경주하여다가 처조중이엇섯는데 적극대승의범행으로 거진판명되엿슴으로 십이일오전에 경성지방법원(민) 검사와 을통을어터 방금검사가 직정신문한후 실지검증을 하는 중이다

運動競技

明大野球十六日來京

明治大學校友會 京城支部招聘으로 來征할 東京六大學 野球聯盟의 覇者明治大學 野球部一行은 來十七、八兩日間 京城球場에서 京城實業團 今春리ー그의王者를 占한殖銀軍과 第二位의京電軍과對戰케되엿다한다 監督이하바어니와 明大野球部一行은谷澤監督以下 卄三名으로 十六日에來京 할터이라한다

▲十七日午後四時半 對京電
▲十八日午後四時半 對殖銀

"排球規則改正"

日本排球協會에서는 昨年神宮大會終了後 競技改正委員會를 열고 協議한結果 從來의 「써ー비스」는 每競技終了할때마다 變行하든것을 最終써ー비스를 反對側에게 주기로하고 選手交代에 잇서서 被交代者가 前試合에 二回까지 交代될수잇든것을 全然 禁止케한것과 또는 競技의 範圍도 從來보다 擴張시켜 한바 이것을 今年春期부터 實施하고잇는데 그改正된 主要點은 다음과갓다

一、競技規定의件 「써ー비스」는 「사이드아웃」의 宣言及 競技終了後에 交代할것

一、試合에잇서 選手交代는 被交代競技者가 同一試合에서 再次競技에 加入할수업다 그리고 交代競技者는 「써버ー수」 「러ー다ー」에서의 被交代競技者의 順에 드러가는것이다

一、審判의 操縱及 審判의 件 「審判」 審判은 「써ー버ー」의 「뉴트랄・존」를 判定하고 其他 主審의要求에 應하야 其意見을 陳述할것과 各役員은 各自其責務를 準備할것

一、今年度부터 協會의規則을 女子中等學校及 小學校競技에도 適用케함

中等籠球戰經過

京城中等校籠球리ー그戰의 東星對京城商業戰은 十一日午後五時四十五分부터 第二高普코ー트에서 開催되엿는바 東星商業軍에 敗하엿다

東星 35 (25 10 … 6 4) 10 京商

學生軟式庭球聯盟에 京城各專門加盟

全日本의 各大學高專門學校軟式庭球部가 團結되여 새로히 日本學生軟式庭球聯盟을 組織하기로 되엿는바 其發會式을 十三日 日比谷公園코ー트에서 擧行할터이라는데 會長은 ……를 推戴하기로 內定되엿다한다

朝鮮에서는 普成專門、延禧專門、京城法學專門、京城高商、京城藥專、京城高工、京城醫專、關東에서는 早大、慶應、明治、立敎、法政、中央、東大、關西에서는 同大、立命、大阪商大、大阪醫大、關學大、山口高商、山口高等校 이라한다

大阪타이거스來征

【大阪電話同盟】 大阪타이거스軍은 十一日午前八時半 大阪驛發九州를거처朝鮮에遠征할터이라한다

本社後援 第六回 中等校籠球大會
申請期日은 明十三日正午限
抽籤은 同日午後二時에 主催側에서施行함
主催 延禧專門學校

集會、布敎、集金等 一切行事를嚴禁
重要幹部에게通告

【全州支局電話】 십일일오전열두시경 전북고등과장은 보천교의 중요간부 수호사장 리병철(李炳喆)원와제(袁?濟)김홍식(金洪植)등세사람을 경찰부로 호출하야 금후로는 보천교로서 집회、포교、집금등일체행사를 하지못할것을 정식으로 통고하엿다고한다

全州出生의林大承 放火事實을自白
朝鮮劇場火災의後報

조선극장이 전소된 원인에대하야서는 소관종로서에서 엄밀조사중이던바 십이일오전두시경에 시내파고다공원을 배회하고잇는 전주군청수정(全州郡淸水町)에사는 림대승(林大承)(三○)을 방화혐의자로 붓잡아다가 취조한결과 그가 불을노흔것을 자백하엿다 그는 전주신흥학교(新興學校)중학과 삼학년까지 단이던 사람으로 이래 계모밋헤서학대를 바다오다가 작년시월경에 참다못하야 집에서 사백오십원을 훔처가지고 만주(滿洲)로 달아낫다가 돈을다쓰고 다시고향에 돌아가 잇섯던것인데 약한달전에 또다시 그의 형에게서 사십원을 어더 가지고 상경하야 시내에서 계란장수등을하고 단이다가 열흘전에는 극도로 세상을 비관하고 한강에가서 빠저죽을라고 까지 하엿다고 한다 범행하던날 오전열시반경에 조선극장에가서 구경을하다가 암흑가의총돌격(暗黑街總突擊)이라는 사진가운데 나오는갱생활을보고 차라리범죄를하고 감옥으로나가버리랑으로 서양두갑을사가지고 아래층남쪽변소밋 「콩크리ー트」가 허무러진 구멍으로

잇슬것이 업서진 山中에疑問屍體
自殺、他殺은解剖結果만期待
明倫町"매봉"고개에서發見

살기힘든것은 다시말할도업거니와 지금세상에는 죽기도힘든일인가보다 여긔에"아베사다"남자관한막이잇스니ー시내명륜정(明倫町)삼정목칠십오번지 인쇄직공다니는 정완섭(鄭完燮)(一九)은 산보차집뒤산으로 도라다니다가 속칭"매봉"이라는고개에서 누어자는사람하나를발견하고 가까히갓다가 죽어잇는것을보고 깜작놀라고부근파출소에 알려왓슴으로 소관동대문서에서는 이등(伊藤)사법주임이하형사수명이 현장에급행하야 검시한결과사후 약열시간을지낫스며 독약을먹고 죽은듯하나 이상한것은 그의국부가 잘려저잇는것으로 혹은타살이나 아닌가하고 부근산충일대를 대수색한결과 피와털까지 부러잇는 리발가위를 발견하엿스며 이가위를어든"삭구"가죽은 사람호주머니에 들어잇스며 버서노흔 구두가 짝을맛처노여잇고 몸에는 아무런 저항의 흔적도업고 이분양복도 정연한점등으로보아 자살설이 유력하다 그러나 최후의 단안은 해부결과를기다릴수박게 업다하며 만일 자살이라하드라도 유서가튼것이업슴으로 그리유는 도모지알수업스나 모르히네중독자인 점으로보아 비관자살인듯하다고、하나 주소씨명은 지금 조사중이며 변령은 삼십세가량, 우에는 회색세비로에 노ー타이와이샤쓰 아래에는 남빗선줄"쓰봉"을입고 잇슴으로 생각나는이는 동대문서에 무러보기를 바란다고 한다

鄭求昌氏追悼會

일즉 조선법조계(朝鮮法曹界)에서 일홈이잇든 고정구창(鄭求昌)씨가 도라간이후 오는 십삼일이 만십오주년에해당함으로 생전친지이든 한상룡(韓相龍)리기찬(李基燦)량재창(梁在昶)외수씨의발긔로 동일오후두시부터 태평통(太平通)부민관(府民館)에서 추도회(追悼會)를 개최한다는데

執行停止로 吳基萬出所

오긔만

소화구년사월에 상해하비로(上海霞飛路)에서 붓잡혀와서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오년징역을 하고잇든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사건의 오긔만(吳基萬)(三三)은 신병으로인하야 병감에수용되여잇든바 요지음병이 위중하야 십일일오후에 집행정지(執行停止)로 출소되엿는데 방금시내 수송정(壽松町)구번지의 이호인 그의아우집에서 료양중이다

朝日택시ー罷業團 今明日間釋放될듯

조일(朝日)택시ー파업사건으로 본정서에 검속된 박명만(朴明萬)최병채(崔炳采)김재룡(金在龍)박영근(朴永根)김창락(金昌洛)등다섯사람은그후엄중히 취조하여보앗스나 별반 혐의가업슴으로 금명간 석방되리라고한다

父母詰責듯고飮毒

【淸州】 청주군사주면 외덕리(外德里)에 거주하는 리상구(李相九)(一七)라는소년은 화흥양복점에견습으로 얼마간잇다가 수일전부터 전귀주소의본가로돌아가서잇섯는데 지난구일 부모에게꾸중을듯고 다량의양잿물을마시어서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資本金五十萬圓의 朝鮮映畫社創立
映畫界重鎭의發起로

박정현(朴晶鉉)리긔세(李基世)안석주(安碩柱)씨등 영화계의 중진들을 망라하야 벌서부터 계획중에잇든 자본금 오십만원의 조선영화주식회사(朝鮮映畫株式會社)는 그후모든 준비를 바뻐하고잇든바 요지음 발긔인들의 결정과아울러 주식모집에 착수하엿는데 오래지안허 그창립을 보게될모양이라한다 그리고 발긔인들의 성명은 다음과갓다、

朴晶鉉 朴榮景 安碩柱 李基世 南延彬 南相一 崔逸淑 崔南柱 金思潤

哈爾濱行列車 寬城子서顚覆

【新京十一日發同盟】 십일일오전두시삼십분 신경역을떠나 합빈에가는 렬차가 관성자(寬城子)역에 다다르랴할때에 큰음향을 내는동시에 렬차는 탈선전복하엿스나 다행히 사상자는 업섯다한다 그런데 관계당국에서는 이는 어느누구의 계획적범행이라하야 사건을 중대시하고목하 엄중한조사를개시하엿다한다

三貯蓄組合의 不正事實綻露

【馬山】 한동안 마산지방에 금융귀관과 저축조합에 부정사실이 련속적으로 탄로되여 협잡배들의 추태백출과 세민들의 가슴아픈 한숨소리가 기억에 살어지기도전에 또 부정사실이 탄로되여 지난 십일 마산서 중촌사법주임(中村司法主任)은 부하를 인솔하고 부내원정(元町)리모(李某)의 상점을 중심으로 조직된 일신(一新) 중앙(中央) 실업(實業)등 이명동신(異名同身)인 세 저축조합을 압수하는동시에 리사리모(理事李某)와 사무원(事務員)리모(李某) 유모(劉某)를 인치하고 그외관계자 오명을 소환하야 취조중이라는데 탐문한바에 의하면 리사리모는 동 세조합의 중직의 자리에서 이상세조합의 저금속에서 수천원의금액을 차용하야 쓴것이탄로되여 방금저축은행령(貯蓄銀行令)위반으로 엄중취조를 당하는모양이라한다

昨今의大旱魃과 農務當局三段對策
南部、中部、北部三地方의標準을定하야
代播까지도考慮中

거다리는비는 한방울도내리지안코 가물이계속하여 남북각지를 통하여 농가에서는 크나큰수심가운데잇다 그중에서도심한곳은 작년녀름에 큰가물이들어서 전답이백토가되엿든전라도와 충청도그외평남도로 이지방에는 수리조합의저수지물이 반이하로말른곳이 십수개소나되고 그외각지도 대부분 물이부족하여 모를내이지못하고 잇스며 그중에서도 천수답(天水畓)은 어떠면 적지가 될곳도 만호리라는 념려가 만타 그래서 총독부 농림국에서는 작금에 한발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게되엿다 당국의조사에 의하면 례년이면벌서 삼할내지 사할가량은 모를 내이엇슬것이 지금 겨우 이할 박게안되는데이고 절긔가 십일내지 십오일이나 느진 터임으로 가물까지 계속하여모내기가 더ᄂ저진다는것은 금번 농형에 전면적으로 영향할우려가잇다는것이다 그러나 이앙긔(移秧期)의 최종시긔를 남조선은 칠월이십일, 중부는 칠월십일 서북조선은 유월말까지로하고 아래와가튼 대책을 버틀도록 각도에 통첩하야 만전을 다하기로하엿다

一、먼저는 모판을 십분보호하기로하고 모가 넘어잘아지안토록 하여두고 도말으지안토록할것

一、물을 절약할것

一、천수답은 대용작물(代用作物)을 심으도록하고 얼마비가오면 다시벼모를 심으도록할것

一、또 논에 보리를심엇든곳은될수잇는대로 보리수확을 일즉 해두엇다가 비가오면 곳벼모를 심으도록 해둘것

一、모가 넘어자랏을때는 다시모판을 내여두기로할것

그리고 당국에서는 우선은 물만잇스면 모를내어두도록 하고 도한편으로는 대용작물로 농가에서 모밀이나 조의종자준비가 어떠케 되엿는지를 조사중이다

天氣予報

槪況 七五二미리의 低氣壓은 滿洲에잇스며 七五八미리의小低氣壓은 東中國海와 南大東島附近에잇다 七六二미리의高氣壓은 日本本州로부터 朝鮮에퍼지고잇다 滿洲는호리며 朝鮮은東岸과南鮮은 호리고 中部는개인다 日本內地도호리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개엿다호렷다하며 明日도갓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七度一
	最低	一四度四
今朝	最低	一五度四
今日	正午	二七度九

(사진은 自滅에直面한 普天敎 十一宮殿의全景)

東京錫의 一去後는 數千乞人만우굴우굴
印章一叺、書類及書籍三叺을押收
② 井邑에서 本社特派員 白安基 記

점문아페는 보천교도의 특색을 갓추운 푸른옷과 양려 닐은동양갓을쓰고 군데군데 뭉처안저서 무어라고 속삭이는양은 맛치 스크린을 통하야 춘향전한막을 보는감이업지안타 십오륙년 동안을 그다지 경찰관의 심한 간섭을 밧지안타가 뜻박게 가택수색을 당하고 다수한서류 인장가튼것을 모조리 압수당한 교도들의 태도는 반ー얼빠진 정신병자와도 가티 보인다 사무실남편으로 노피솟아 맷교주차경석의 한때 위엄을 여실히말해주는듯한 십일궁전(十一宮殿)은 맛치때가진(蠹)하야 락회시절이와다는듯 의운의장마이 뷔고도적한 건물을에워싸인듯하여 보화문(普化門)여떼 록백마명신도가 수저 한개식을모아 만드러노앗다는 종각에말못하고 숨어잇는 보종(普鐘)은 누구가볼릉이를건드리지안해도 제절로 최후를맛치는 조종(弔鐘)소래가 은은히 귀자의 귀를 울려주는듯하엿다 지리한 여름날 왼종일을두고 경찰의수색에 아모런흥미도업시 사가지나는 십일일오후다섯시경이엿다 수합물로는 분명히는알수업스나 인장(印章)이한가마니 (세가마니에서 두가마니는 버리고)서류랍 서적이 사오가마니나 되는듯하다

근이십년을두고 조선사람의살림사리를 헤아릴수업슬만큼 망처 수천의"거지"를 뻔조케맨드려노코도 뻔뻔하게 내일모래아즉때가 이르지못햇스니 조금만더참어라 부귀와영화는 너이들에게잇다는 감언이설로 괴만의구렁이속에다 여지업시 매장하야 근이십년동안을 감쪽가티 속여오다가 이번의 수색에는틀림업는 죄상이 여실히 폭로되리라 이것으로써 오래동안 조선민중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밟버노흔 보천교의 운명도 최후의 고개를 넘을것이다 이번국의 거사는 보천교의 근절、박멸을 전제로한것 가트며 아프로 그들신도에게나리는 서리발은 좀처럼 꼿처지지를 안홀것이다 (곳)

大谷炭坑(福岡縣嘉穗郡)爆發 六十名一時死傷
十一日午後、原因은電漏?

【福岡電話同盟】 십일일오후여섯시 이십팔분 복강현조옥군우미촌대곡탄갱(福岡縣糟屋郡宇美村大谷炭坑)에서 「가스」가 폭발하야 십륙명이죽고 이십팔명이중경상자를 내어다 참사가돌발하는동시에 대곡탄갱에서는곳 구원대를 파견하야 구조에노력하엿다하며 원인은 전긔가 루전(漏電)된듯하다하며 상세한것은 목하취조중이라한다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를 挽回하는 新職業 ………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偉大한二大工業後援합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進歩的社會의發展을 爲하는大事業
第一 第二 ……… 株式會社

山羊 明本山羊牧場

蹴球 ◎五號上製……4、50 ◎五號特製……4、80 ◎六號特製……5、50
◎西洋黑頭靴……3、80 ◎西洋黑갓가루長靴……4、80 ◎黑깃도短靴……6、50 ◎黑頭滿鑲上靴……5、50 ◎白黑色蹴球靴……5、00
京城鍾路 大信洋靴店

개량담배대 ……… 元賣發造製 京城府鍾路三丁目九 德昌工業社

新朝鮮法學講義 法學士 山名酒喜男先生新著 定價金三圓二十錢 送料書留三十錢 第一版、第二版豫約濟 第三版目下發賣中

朝鮮官界の登龍門 普文受驗者の必要缺くべからざるもの即ち本書 京城府永樂町一ノ七九 發兌 文林堂 振替京城五四一七番

リリヤン 사실 색실 꼰실 바늘、수본、실、재료、文化刺繡、朝鮮刺繡、西洋刺繡、其他、佛沙 ……… 東京 天光堂

Columbia 斷然人氣沸騰 懸賞레코ー드 물새야웨우느냐 期限六月三十日로臨迫!! 콜럼비아

スピードー膨脹機 (五合米가八升으로되는) 돈버리大王 特價販賣 製麵機大王 特許新案 長谷部式製麵機 ライト發動機鮮滿總發賣元 中島式製粉機販賣店 京城府元町一丁目百十七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四一三七・振替京城一八二四三

驅虫藥 マグニン 마구닌 아무리滋養을攝取하여도살찌지안흘理致 效果만코먹기쉽다

巡査看守(受驗講義錄) 朝鮮警務學會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電本(2)三〇三〇番

金 銀 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出張所 平壤府旭町

クボタの……ディーゼル機關 石油發動機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 06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新京 札幌・八幡

六月十日封切 每日三回 特別大興行 京城撮影所超特作映畫 李銘牛監督作品 朝鮮語全發聲日本版 洪吉童傳 後篇 李慶善、李錦龍、李鍾哲、羅雄、金寅圭 主演 朝鮮發聲映畫로서代表的傑作! 規模의壯大함을자랑하며技術上엄청난進境을보여준雄篇
伊太利A.C.!超特作映畫 산도로말미에리 主演 面影
伊太利가나은優雅典麗한音樂藝術映畫!三十五年度歐洲映畫藝術賞을바든錚錚한名篇!
佛國토비스社超特作映畫 G.W.파부스트監督作品 上에서下까지 토비스社의精銳를網羅하야痛快한諷刺名喜劇이되다
(次週封切) 鄕愁、쩡글의王者
(近期待) 米國의機密室、晩春、메트로포리탄、나는거리의재올거리、오페라핵、뮤직꼬라운드、템플의愛國者
映畫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學校生活과 眼의衛生

새책을읽든지글자를쓰
든지하는小學兒童들이
나細書한教科書와생수
한外國語를읽는上級生
徒들이나모다視力補强
에注意하시라

눈의不健康은곳腦의活動을不敏
케하며成績의低下를招來합니다
小學校中等學校로부터大學까지
오랜課程과긴學業때문에純正한
眼科藥의撰定을……

眼科藥の撰定に就いて

스마일

눈을保護·視力을强하게

近者에、小學校兒童을비롯하여一般學生生徒사이에視力不健全者數가增加되고잇는것은各種調査로써나타나고잇는것은참으로憂慮할現象이아니라할수업습니다。

從來에、眼은胎上、腦의一部라고보아온것만큼、兒童期에些少한不注意로眼疾에걸여視力이弱하게되면直接腦의作用이鈍하게되며、頭重、頭痛을이르켜、슬증을이르켜學業의成績까지도 低下식혀將來에禍根을 끼치게되는故로就學兒童을 거나리신家庭에서는 特히注意가必要합니다。

그런데多數人이集團하는學校生活에잇서서는조금만잣치하면不潔不衛生에빠지게되며眼病에걸닐危險이만코又눈文化의發達에따라서日常눈을酷使할機會도自然히增加되여가므로써이와가튼環境가운데의愛兒들의視力을求來保全하려함에는各家庭에잇서서優秀한眼科藥의常備가가장必要하여지는것입니다。

스마일은이와가튼文化生活必然의要求에應하기때문에、最新의學理에基한、最高의處方調劑에依하야 完成되優秀한眼科藥으로서、優秀한消炎、殺菌、收斂作用을發揮하야結膜炎、角膜炎、도라홈ー等學生生徒에만타、各種의眼疾을明確하게豫防治療함과同時에、視神經의疲勞를治癒하며充血을除去하야視力을强케하며、氣分을爽快케하는合理的藥効를가지고잇습니다。

따라서眼疾에걸엿슬때에는勿論、平素보다朝夕洗顔한뒤에나工夫에疲勞된때에는隨時로『스마일』을點眼하는習慣을부치며眼에榮養을주어、항상明徹한視力을가추어、學業의成績을優良하게할수가잇습니다。

더욱『스마일』은日常連用하더라도、조곰도副作用等의念慮가업고、또한携帶便利한自動點眼式容器는누구에게나簡單하게使用되므로써學童用으로서는가장好適한眼科藥입니다。

結膜炎

學童에가장만흔眼疾이다、眼瞼과眼中이붉게되고、起床時眼瞼이膠着하야눈이띄지안코、눈알이깔깔할즈음에…눈을쉬게하고、一日數回『스마일』을點眼하면恢復됩니다。

★

角膜炎

黑眼이흐리고 피ㅅ줄이서고、눈물과눈곱이끼여눈이흐리고、光線에는또자못할時……눈의清潔에 留意하야、『스마일』을點眼하면速하게輕快됩니다。

★

充血

『스마일』은其他各種의充血과溷濁을除去하며언제나明朗한눈으로整濟식혀머리의活動을良好케합니다。

도라홈ー

集團生活을通하야걸니기쉬운傳染性의眼病임니다。豫防法으로서罹患者에接近치말고、洗面器와손수巾等을各別히하며、硼酸水로眼을씻고『스마일』을點하면、혹여感染되엿드라도早期에이方法을 實行하면 惡化를防止、經過를 良好케합니다。

★

眼精疲勞

都會地의兒童이나虛弱體質兒는讀書、工夫의時에、눈이疲勞키쉽고、그結果學業을소려하기쉽습니다。朝夕으로『스마일』의點眼으로이와가튼 視神經의疲勞를除하며、工夫의能率를 늘힘니다

容器의特色!

堅牢優美하고 携帶至便한容器가即座에巧妙한自 點眼器가되는新創案!銀色의뚝껑을열고 容器를垂直으로눈가장자리에 다이지안홀만치하고、그末端을손끗으로 輕하게두둘기면 一滴!一滴!快然하게、가장衛生的으로點眼이됩니다。

(定價) 二十五錢・四十五錢

全國藥店百貨店藥品部에잇슴

總代理店 **玉置合名會社** 東京・大阪

새로운초의가치 『비타민』을돕는다

상극이된다는것은반쫌헷소리 나물에만히칠써록조타

이때까지는 비타민이 뜨거운데나 산데는 업서저 버린다고 해서 나물가튼데도 초를 치지 말하야 조타고알아왓습니다만은 그정반대로 초는 비타민을 보호하는 약이 되야 나물가튼데 초를 칠수록 조타는 것이 발견되얏습니다。원래 비타민씨는 흐터저 버리기가 비상히수워서 자칫하다가는 모다흐터저 버리고마는데 산(酸)이 들어가서는흐터지지못하도록 보호하는동시에 물에 잘녹도록 맨들어준답니다。

×

홍차에다가 레몬을 너허서레몬티를 맨드는것은 서양人사람의 풍속이 오나 근본 한방약에도 차에다가 진피(陳皮)란든지 청피(靑皮)란든지 산초(山椒)가튼 것을 타서 먹는것이 잇습니다。그것은 롤른 산이 비타민씨를 보호한다고까지 명확히 알아가지고 한 일은 아니겟스되 부정중 그만한 이익을 알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비타민씨가 만흔 캬베쯔라든지 오이든지에도 반듯이 초를 처야만 거긔 잇는 비타민씨를 온전히 섭취할수 잇슬 것입니다

×

중국서는 약이외 차에다가 다른 것을 별로 타지 안하지오만흔 서양人사람들은 흔히녹차(綠茶)에도 크림이라는등레몬이라는등 타서 먹습니다。맛은별문제로 하고 영양으로 보아서는 그 것이 오히려 조습니다。단지 차人속에 잇는 탄닌산이 산을 맛나면 산화(酸化)되고 조금 풀리어 엇는 담배질도 산을 맛나서는 구더 버리기때문으로 레몬을 오래도록 너허 두엇다가는 아래로 가라안자 우에 것울이 돌고 향긔도 전부 업서저 버립니다。레몬을 너흘려거든 차에다가 미리 너치말고 따로 담아다가 노흔뒤 마실때 비로소 타가지고 얼는 마시어 버릴 것입니다。그뿐 이아니라 밀크도 차에 타서 오래 너두면 가라안고 겅울이 롤게 됩니다。그것은 홍차의 탄닌이 밀크의 단백질과맛나서 고만 서로 엉기어 붓는 것이랍니다。

×

조선서는 풋나물에는 반듯이 초를 처서 먹지 안 하얏습니까?홍차에 레몬을타고 차에 진피나 청피를 타는것과 가티 비록 알고 한 일은아니라도 실지 경험으로 차흔 지식이어든 모양입니다。그런데 일지반해(一知半解)로 초를 처 먹어서는 못 쓴다고 제법 영양화적상식이나 잇는 체 떠들지 안 하얏습니까?그로 미루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제한되야 잇다는 것과 또우리조상의 경험이 얼마나 갑시 잇다는 것을 깨닷게 하는 점도 업지 안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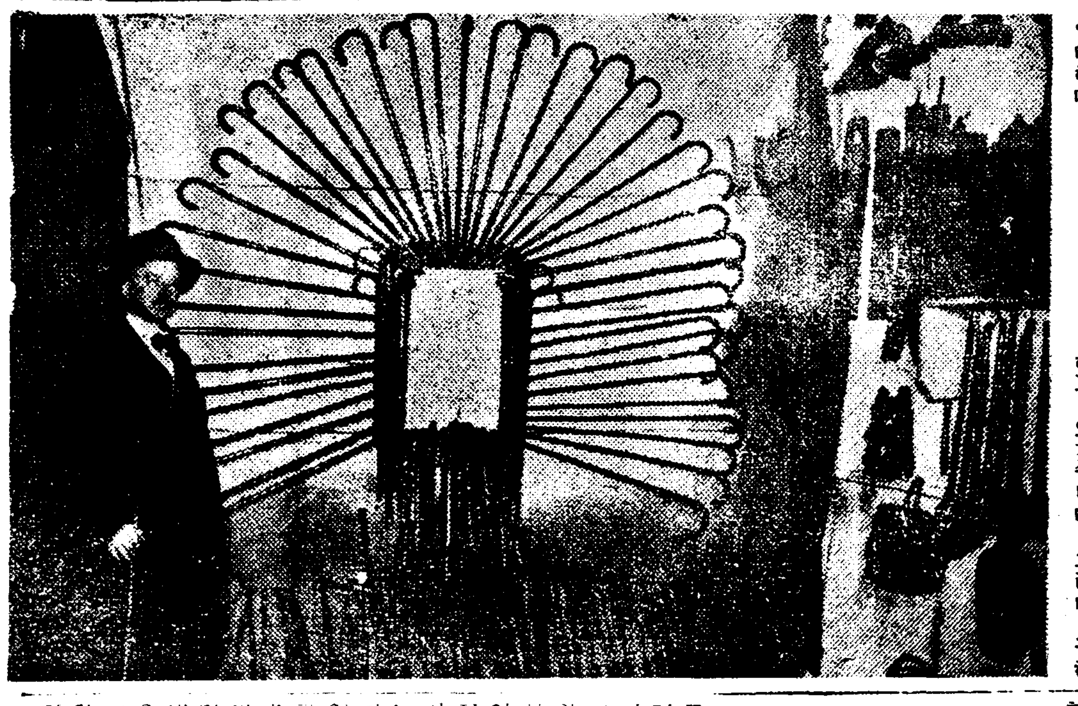
그러나 초가 모든 비타민을보호한다는 것은 결코 아님니다。비타민씨만이 보호되는 것으로 에이라든지 삐는 물론 결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니까 비타민 씨를 잘 섭취키 위하야 에이나 삐등을 희생하라 또는비타민에이나 삐등을 섭취키 위하야 씨를 희생하라가 문제됩니다。그야말로 올찌 잘찌하는 판이오나 그것은 그음식물에 어떠한 것이 만흔가와 또 그 당자가 어떠한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를 보아 가면서 정해 잘 것입니다。

童話

정수봉의달빗 (二)

成俊德

가운이시진하야 촌보를 갓가스로걸지경에서이러케수렁속으로빠저고보니 조곰도용긔는 나지안햇습니다 수렁속은 또개흙이여서 움직어리면 움직일사록룡갑이의 몸은 점점기픈곳으로 빠저드러갓습니다 룡갑이는 악을 쓰며 울어씃습니다 아모라 아모리 목청을 노피며 울어도사람의 소리라고는 도모지들이지안햇습니다 룡갑이의몸은 점점파뭇처서 아제와서는 가슴까지울이 올라왓습니다 이러고보니죽을수밧게는 별도리가 업섯습니다 이는 죽을때죽드래도 악이나써보겟다하고 『사람살리우!사람살리우』하고 외첫습니다 그러나 구해주는 사람은 하나도업섯습니다 벌서 저녁때가 되여솔밧속을물코 비치는 붉은해만 위로해주는것 가탯습니다 숩사이로 저가는 새들의떼는 저녁안개속에서 깜을 깜을 자질해가건만 그우에 솔닙소리는 더한층무섭게싸-쏴-들여씃습니다 어느듯 저녁해도 너머가고 검푸른하날에는 총별들이깜박 어리엿습니다 룡갑이는 아제는 팍죽어수나하고 실망을하엿습니다 물은도점점 올나와서 턱까지다어씃습니다 룡갑이는 이제는마즈막이로구나하고 힘업시한번더 『사람살리우』하고 외첫습니다 그런즉참이상한일이엿습니다 어데인가 풀숩헤치며 급히다려오는 뭇슨소리가낫습니다 룡갑이는 이것은 반다시 앗가자긔가 구해주엇든 그어리아해이겟지하고 생각을 하엿습니다 그런즉 그는 또 뜻도아니한 난데업는 큰개한머리가 숩풀속에서 고개를 쑥내밀며 룡갑이를 바라보고잇섯습니다 그도 또한말못하는 즘생이지만 룡갑이의 생명이 대단 위태한것을 알고 두어번 『컹컹』하고 지젓습니다 룡갑이는 문득생각을 하엿습니다 그는곳저고리를 버서서 저편갓에서잇는 개젓흐로던젓습니다 그리고는 『개야 너도 사람아페서 밥을 먹고 사라오거든 나를 좀구해다구 자그러니 이저고리를 팍물고 자바다녀라』 하니 개는그소리를 아러드럿는지 중중하며 저고리를 럽석 물고는 압발을 뻬뎅기고 뒤거름질을 처나갓습니다 이라하야 룡갑이는 간신히 물박그로나왓습니다



단장수집광

선전여러나라의 서울『스톡호름』에서 가구상을 경영하는『쿠누트·엥겔부렉손』이란사람은 진기한 단장모으기로 아마 세계에서 제일일것이라합니다 그가고심참담해서 오늘날까지 모아노은 단장의수효는 일백오십개、그가운대『에디오피아』황제께서 쓰시든것、최플린이 영화에나올때 쓰든 단장까지 잇다한다。

대통령부인이 불량소녀를초대

—미국사람에겐말이만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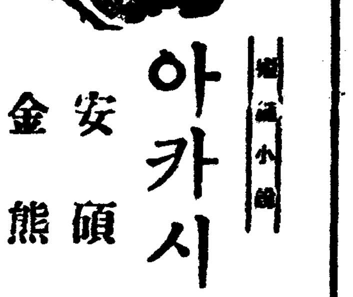
미국대통령루즈벨트부인을미국에서는 제일부인이라고합니다 제일부인이라고 큰마누라란는뜻이아니라 그를존대하는 의미에서 미국의제일부인이라는 경칭임니다 그건그러타하고 이제일부인 사회사업을 한답시고 실업부인을 위하야 림간직업학교(林間職業習得學校)를 경영하고 또한편 매일『나의하로』라는 제목으로 수필을써 신문에 과려먹기…이러케 대단히밥분몸인데 지난오월에는『위싱톤』특별구역 국립불량소녀교정소(國立不良少女矯正所)에수용되어잇는 불량소녀 륙십명을 관저로초대하야 잘차려먹여 미국사람들의 입을 벌리게햇다합니다 이교정소에수용된 게집애들은 세번이상경찰신세를 저본시롤세이상 이십일세의 묘령인데 그중 이십륙명은 매독그나머지는 개개화류병에 걸려잇는데 수용소에서는 이들을 쇠창살속에 너허두는고약스런 아가씨들입니다 이것을끄려내어 초대를햇스니 아모라자유주의의 미국이라한들국민들이 눈이휘둥그래질것은 물론입니다 연회를열든그날은 신문기자의출입은 금하고 관저의 요소마다 사복경관을세워 이손님들 다라나지못하게망을 보게까지 햇다합니다 그럼동안 대통부인은 불량소녀들에게 악수의광영을 주엇다하야『잘한일이니』『잘못한일이니』해서 말들이 만흔모양입니다

◇사진은『루스벨트』부인

連載小說

아카시아 (十一)

安碩柱 作
金熊超 畵



박의사의집아페 다다른 영섭은 그안에 불이다 꺼저잇서서 캄캄함을 보고도 초인종을 눌럿다 한참기다도로 아무런 긔척이업다 그래서 몃번이고초인종을 눌럿스나 역시 잠잠하다 나중에는 문을흔들어호통고소리를치나 아무런 대답이업다 필연코 자긔가 추측을한것과 가티 알고도 모른체하거나 그럿치안흐면 어느료리人집에서밤을새든지 소실의집에잇는 것이라하엿다

그만회중이 버럭나서 문을박차고드러가서 소리치고십헛스나 그대로 도라섯다 수중에 돈은 업스나 어린애나 살려노코보리라하고서 발을떼여노핫다

자긔안해가 죽을때 보아주든 의사는 아즉도 약갑을치루지못해서 떠구나이밤중에 깨여이르키기는 미안하지만 이때까지 약갑을조르지안코 길에서맛나서든 이생기거든 내라고까지하는 무던해보히는 의사인고로 가왕자긔를 보아주든터이니 한번 더 보아달라고 하고서 김의사에게로 가다

그집은 아즉도 불이켜잇섯다 맛침 의사는 무엇을 연구하는중이든지 영섭을 선듯 마저주엇다

의사도 영섭이가 이밤중에왓슬때는 필연코 무슨급한일이잇스라라고 보앗든지 이런때 보통의사는 냉정햇겟스나 그는 먼저영섭이가 온일을뭇고 친절히구럿다

영섭이가 이기픈밤중에온 일을 이애기를하니 의사가 먼저서둘러서자동차를 부르고하야 영섭과가티갓다

『내가 누구에게드르니 형장의 가정형편이 안되엿든군요 부인이 유일호시고 애기를 유모에게만 맛기셧다니 그게될일입니까 다시결혼을 하서야겟군요 집안에 주부되시는분이 안게시면 안될터인데요』

『그래요 그러나 어듸 요새 들이 어려운살림을 하라듯니까 소위인테리-라는 츨들은 안해도 데리고 살수업는 세상인데요』

두사람은 차안에서 이런이야기 저런이야기를 하는동안에도 영섭은 그동안 일성이가 죽지나안헛는가 애가탓다

차는 영섭의 집을 드려가는 골목박게서 머물럿다 두사람이 나리자 의사가 찻갑을치렷다。 영섭은 창피햇스나 의사의눈치는 자긔가 찻갑을 내다해도 구지말릴눈치다

의사가 영섭의 집을드러가서 방문을여럿슬때는 어린아이는눈을뜨고 잇섯다 유모는 의사와 영섭이가드러오는것을보고는 이러섯다

『어떠요』영섭이가 유모에게무럿다

『글세요 지금간신히 눈을떳는데 딸다리가 점점 더 새파래지는군요』

『네!그게근지안흔데요』 이번에는 의사가 맛장구를첫다

의사는 어린애에맥부터만저보더니 긔색이조치안타 또 청진긔를 어린애가슴에대여도보고 입도열고보앗다 그리고 주사를줄터이니 정한물을드려오라하엿다

유모가 물을드려오자주사긔를 소독을하고 약을집어너어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주사를주엇다 원만하면 아퍼서울것이지만 열성이는 드러누운그대로 숨소리만노플뿐이다

『사실 이주사가 마지막입니다 만약 회생을하면 과적일것입니다 곳잘생겻는데 겨참가』

의사는 다시주사를씻고 손을 씻고는 유모가내주는 수건에손을씻스면서 그의시선은 어린애게서떠나지안햇다

『그럼 죽게스군요』 영섭의얼골에는경련이지나갓다

『글세요 나는 장담못하겟습니다』

『저를엇재요』

의사의말에 유모는가슴이덜컥내려안진모양이다

『사람은 죽엄을면할수업스니까요 누구는일즉죽고누구는 늦게죽는것박게다른것이업지요 그러케생각하면 사람의죽엄에대해서 냉정해집니다』

의사가 가방을 다시 염이고 『과히 실망은 마시지요』하고 영섭은 팔목지를 던지시쥐고흔드럿다

『네-』

영섭은 의사의말에 무의식적으로 대답을하고서 의사를따라박갓까지나아갓다

『아참 차를 불러야할것을 이젓습니다그려』

영섭이가 박그로 먼저뛰여나아가라하니 의사가붓잡엇다

『천만에 오늘 머리속이너무도 피로도하고하니 술슬거러가겟습니다 여기서 거가가얼마나되나요 앗가에는 하-도급한일이니까타고왓지만……』

의사가 대문을나아가갓다

『어서드러가보시지요』

『네-』

영섭은 다시뛰여드러와다

ウテナ 우 데 나

愛用者

御招待會

映画と舞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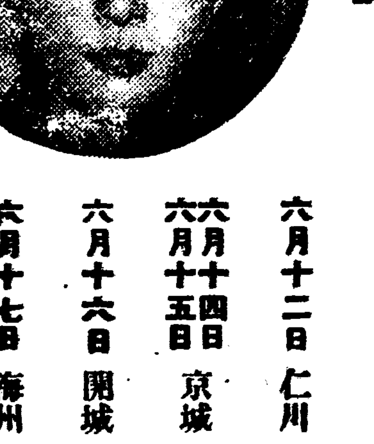
푸로그람

一、토-키-短篇映畵
二、新日本舞踊 九貴麗子三姉妹
三、漫談과鳥獸聲帶模寫 木下華聲
四、新日本舞踊 九貴舞踊團
五、映畵
A、漫畵
B、朝日世界뉴-쓰
C、라듸오放送局의하로『電波로놀는』三卷

吳藤靜子

九貴信子

九貴麗子



木下華聲

六月十二日 仁川 瓢館
六月十四日 六月十五日 京城 府民館
六月十六日 開城 開城座
六月十七日 海州 海州劇場
(各日午後六時半開演)

御招待方法

近處販賣店에서 ウテナ化粧品一個買上하실때마다待券一枚식進呈함。當日來場하실때에는반드시招待券에 ウテナ化粧品의空函을 함께持參하시라。滿員될時에는 未安하오나 入場못하게되오니 速히모이시라。

主 ウテナ化粧料本舖
催 ウテナ化粧料販賣店聯合

九貴靜子

ウテナ(雪)バニシング(印)クリーム

넘치는魅力!
躍動하는美容

산뜻하고도爽快한 그感觸
餘分의脂肪을 解消하야
눈과가티빗나는美肌를養하는
朝夕으로즐거운ウテナバニシング
벗거름、여드름을防止
날로 살결을 젊게하는
ウテナ의雪印으로
初夏를 맑고 젊고
明朗하게

純白·無脂肪性

六月創作評【六】

人生觀照의 눈이 自然體系의 盛林으로

朴英熙

『언젠가 병아리를 깟는데 이것들이 차차 커서 손등을 벗고 날개가 커지드니만 암탉이 암만불러도 펄펄이 다라나는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이러케 말하엿섯다。』

『허-즘생이구、사람이구 자식이란 품안에 잇슬때지、커노흐면 저모양이구면』

두時代의 떨어가는 距離를表示한 가장普遍的 對照다。그런데 이 作家는 이러한 對照를 잘하는듯 한데 이것이 너무지내처서 도로혀 不自然한것을만들고 마는수가 잇다。이作品의 最終部分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時間이 더듸간다고 생각하고 딸은 딸대로 時間이 빨리간다고 생각하는것을 對照한것이 얼는보면 대단히 자미잇기는 하나 小說作法으로 본다면 不自然하게 생각된다。이런 境遇에는 作家가일부러 對照를 식히는것과 自然이 對照 되는것이 잇는데 이곳에서는 作家의 지내친 技巧가 도로혀 不自然한 結果를나타내고 말엇다고 나는 생각한다 당안의 아버지와、답바에딸의 心境이 深刻한 그것보다도 오히려 喜劇的 結果를 나타내고 말엇다。作家의 人工的工作이 過하엿스며、그 機智의 銳利함이 度를 넘어서 鈍해젓다 아프로 만흔 努力이 잇기를바란다。

『春宵』朴花城作 (新東亞六月號)

杏花는 地上에 馥郁한 香氣를 뿌리것만、薰風조차 업는 春宵에는、한폭의 人生悲劇이 展開 되엿다。零落하여버린 양림아네집에는 어제부터 끼니를 끄리지 못하고、焦燥한 남편의 얼굴、굼주린 자식들의 꼴을 보다못하야、양림어머니는、負債가 잇슴을 不顧하고 여페 崔氏의 집에 가서、菜蔬를 어더가지고 줄어가는 배를 움켜잡고 市場으로갓다。天幸으로 남보다 일즉이 처옹으로 다팔고、조고마한 希望을 품고、집에 도라와서 물어 나케 밥을 지을동안、人生의 不運을 누가 뜻하엿스랴、바게서 놀고 잇는 줄만 알엇든 망네딸이 이웃집 똥통에 빠저서 絕命되고말엇다 그의어머니는 하늘을 부르지저 울엇다 이것이 이作品의 이야기의 줄기다。

이야기로 말하면 農村一偶의 不幸한 生活을 그린것으로 흔한事實이다。또한 過去에 잇서서나 或은 現在에 잇서서 朝鮮의 作家들은 얼마나 만이 이러한 이야기를 小說의 內容으로 삼어와든가!

그러나 氏가 人生을 理解하여가는 그眞實性의 發展은 이 作品에서도 充分이 나타나서잇다。『人生을 理解한다는 말은 다른것이 아니라『人生을 事實대로』『人生을 客觀的眞理속에서理解하려는것을 나는 意味하는것이다。이러한 意味에서 荒蕪하엿든 客觀的世界로 氏는한발 한발 거러가려고 하엿스며 이作品에서 一層 더 그곳으로 기피 드러가는것을 깁부게생각하는바이다。

所謂 過去의 맑스主義的作品에서 보면、人生은 作家의 主觀그대로 個人形과 가티 製造되여서 잇다。그들은 人生과 人生의 生活을 自己들의 挾少한 主觀에서 逍遙하고 잇섯든것이다。宇宙의 運行의 法則을、사람의마음대로、그 時間表를 改正 할수업는것과가티、人生의 錯雜한 運命이、作家의 頭腦가운데서、마음대로 勝敗 할수는 업는것이다。理想이 잇다고 반드시 成就하며、正義感이 잇는것만으로 人生問題를 解決하며、가난한사람이라고반드시올흔사람이며、合하면반드시勝利하야 사람의 物質的生活關係에 潛在하여잇는 그重要한 精神的機構의 自然體系는 容易치도 敢히 건드리지 못할뿐 아니라、오히려 그것을 排斥하고 人間을 한個의 機械로 敎育하고、作家는 『스윗치』를 부틀고 잇섯든것이다。

이 作品에서 氏는 完全히 그러한 領地에서 脫出하엿다고 나는본다。그筆致는 어듸까지든지 冷靜하며、그觀察은 人生의 自然體系의 盛林을 엿보려는듯하다。

양림어머니가 平時에는 여간해서 그다지 速히 떨어버린수 업는 菜蔬를 거진 奇蹟的으로 딸어버리게된 好運은 結局 巨大한不幸을 齎來하기 위함이엇다。不幸한者에게 더한層 不幸을 던저주려는 作家의 意圖는 한편으로 보면 人生의 悲哀를 誇張하려는데 잇슬것이며、또 한편으로는 人生의 災難과 苦惱가 永遠히 사람을 따려다니는、眞理그대로、事實그대로를 客觀的으로 表現하엿슬것이다。作家가 前者에 着眼하엿는지 後者의着眼하엿는지 나는 斷言할수는업스나、나타난 이作品에서 본다면 別로 原因도업시、망네딸이 똥통에 빠저서 卽死하게한、그偶然한『에스테듸』와、그筆致의 客觀性으로 보아서 이 作品에서는、作家가 後者에 着眼한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朝鮮俚諺에 對하야

—그蒐集과 整理의 必要性—

⑥ 金思燁

朝鮮俚諺의 特質

아페서 筆者는『俚諺은 한民族精神의 小照라』고말하엿거니와俚諺은 한民族精神뿐만아니라特質과 才智를能하게 表現하고잇슴으로 그民族의過去現在의 歷史信仰風俗制度性情等을 살피려는이에게는 가장貴重한 材料가될뿐아니라 民族心理學研究者에게는 가장 緊切한對象이되여잇다。어느句나 다이와가튼 特質을 具備하엿다고는 할수업스나 그中에는 그國民性을엿보기에 充分한 俚諺도 相當히만타。俚諺을 通해서본 朝鮮民族性의 特質의 하나는 妥協主義라는것이다。일즉이 漢人이『好讓不爭』이라고 月旦한거와가티 朝鮮民族처럼好人은업다『三月春風』이라고하야 누구에게나 妥協하기를 조와하며 아모일업시 平和하기를바란다。그래서『웃는낯에춤뱃트랴』고하야 누구에게든지 웃는나츠로 對하기를 勤하고 슬픈일도 괴로운일도 『우서치워라』고하고 웃는가운데 解決짓고 妥協하려고한다『참을忍字셋이면 殺人도 避한다』하야 참는것으로써 美德으로녀인다。그러나 이것은 一面勇往進取의 意氣가 缺乏하고 冒險性이적으며 自然保守的 退嬰的으로 만드는 缺點이 反面에潛在하여잇슴을 본다 世波의辛酸을 맛본老人이 自己孫子을訓戒하는듯한 質實沈重한俚諺은比較的만호나 乾坤一擲의 壯語는 씨할려고求해도 어더볼수업다。

아는길도 물어가거라

오르지도못할나무는 처다보지도마러라。

얏흔물도 깁게건너라。

이것따위는 普通조흔意味로解釋하여 凡事處理에 用意周到함을 가르키고 잇스나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無氣力하고 冒險心이 적으며 保守的인가를 衷書하고잇다고도 볼수잇지 안흘까? 그다음으로 特異한點은 樂觀主義的 逃避思想과 從屬性이 가한다。

쇠불알떠러지면 구어먹으려고 솔가비단안고 뒤따른다。

홍시떠러지기 실허서 감나무미테가 입벌리고누엇다。

배불느면 종의밥지지말란다。

소임코 외양간고친다。

매끄레젓는다。

다팔아도내땅。

매도먼저맛는놈이낫다。

『원님과 吸唱이와 훈장을 하도 웨누리가잇다』『아주머니도좌야사먹지않은』다利己的인 말하고 잇고 『兩班인가 두兩半인가』『사람색기는 서울로보내고 마소색기는 싀골로 보내라』는 下層階級이 兩班에게 對한 憎惡와憧憬을 表示한것이다。

세살적부터 무당울하야도 목독鬼神은 못보앗다。

선무당사람죽인다

이웃무당鬼하지안타

이것은 迷信에 對하야 懷疑하여 밋기 어려움을 말한것이고

딸이셋이면 門여러노코잔다

굿을하여도 맛며누리춤추는꼴 보기실타。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굽치가 닭의알갓다。

씨앗숙은돌부처도돌아볼

때리는 싀어미보다 말니는싀누의가더밉다。

싀모에게여젓나서 개의염구라찬다。

열씨앗이 미올지안코 한시누의가밉다。

이것은 모다不合理하고 融通性이업는 家族主義制度가 가저다준선물이다。

『山이우스면 들이울고 들이울면 山이운다』『明紬옷은 四寸까지덥다』等은 禿山이만코 手工業으로 生活하든 朝鮮에서만 볼수잇는現象이다。그리고材料로 引用되는 動物中에

호랑이에게물려가도精神만차려라

호랑이도 제말하면 온다。

범도새기둔곳을두남을둔다。

山에가야 범을잡는다

山호랑눈섭

仁王山모르는호랑이가잇스랴

호랑이잡고 볼기맛는다

범에게날개

호랑이보고창구멍막기

소도언덕이잇서야부빈다

쇠뿔도각각 념주도각각

소타고소를찻는다

소귀에경읽기

쇠불알떠러지면구어먹기

소가크면王노릇하나

等虎와『牛』에 對한것이만타。이것은西洋俚諺에 羊에關한것이만흔것과가티 朝鮮人과 가장因緣이깁흔이두動物이 俚諺에引用됨은 自然일것이다。

이가티 朝鮮俚諺은 大體로보아 警拔奇峭하며 機智와 諧才가 豊富하다。俚諺이라고 大槪는 外來俚諺의 影響을 바다서 純鮮한朝鮮俚諺은그리혼치못하며 暗喩와省略法을使用한것이만타。

以上으로拙文을 略하나마 朝鮮俚諺에 對하야 그大綱을 紹介하여보앗스며 研究方法으로(Trench) Proverbs and their Lessons 와 藤井乙男氏의 論文을參考하엿다。

남의나라에서는 벌서俚諺研究까지完成되엿는데 朝鮮에서는 이를問題삼아 學的으로研究하여보려고하는이도 적다는것은 甚히북그러운事實이다。아직蒐集도 안된채 그냥잇스니 무엇보담 蒐集의 必要가잇서는 問題이다。

一隨筆一

文學人의 觸感

⑧ 蔡萬植

種牛와去勢馬 (2)

S가 설흔두살에 三男妹를 둔 애아버지인것은 아럿지만 그새 또하나를 나서 그래서 半打채 둘이 모자라게까지 된것은 몰랏다

『이사람 거 조찬혼가?』『나-라 퍼처라』몰라? 그래서 世界를 征服해라』

『흥! 이사람이 백계 사람을 놀리나? 글세 도야지새끼처럼 우쿠루-하게 數만 만해서 무엇에쓰나? 무얼먹이고 무얼입히며 어떠케 가르키나?』

S는 아주 진심으로 대들면서 내게다 自己격정의 牛癖떠매끼기라도 할氣勢다

『그대로 자네는 조흐니…다정한 마누라가 잇서 재롱질하는 아들딸이잇서…나가면 버리요 들어오면 樂이요 헌데 왜그리 우나? 내가 아들이나 하나 養子로 달랄가버서?』

『놀리지말게 제-발 나는 獨身좀 되어보앗스면 한놀이라도 올라가겟네』

『나는 제-발 정다운 마누라가 잇서서 家庭만을 좀보앗스면 한놀이라도 올라가겟네』

『나가튼것은 種牛나 그런것이지 人間다운 人間은 못돼… 人間씨나 바드려구 사라잇든 人間이야……씨밧는人間 種牛!』

『나는 나가튼人間은 去勢식힌 軍馬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놈 去勢식힌 軍馬가 부러워이』

『나는 種牛가 부러워이』

『겨참 寡婦서름 寡婦가 안다는데 자네는 왜그리케 남의 답답한 속도모르고 빈정거리만하나? 웅 이사람 가난뱅이 서름 자네도 잘알면서그래? 먹고살것은 업는데 새끼는자꾸만 생기고 그걸 어떠케해?』

『나는 孫子가 느저가는데…』

『망할것! 그럼 자네處地하고 내處地하고 바꾸어바리세』

『그래도조치』

『자네가 내가된다면 어떠케할텐가?』

『아이를 배슬때부터 든돈을 아이마다 따로 따로 적어둔단말이야』

이러케 나는 說明을 하엿다

그래서 學校를 마처슬때까지의것을 合算해가지고 그놈이 就職을해서 收入이 생기거든 그놈더러 그全額을 每月 月給中에서 얼마씩 月賦로 가퍼가게한다

그러케 子女間에 셋이나 넷만두고지나면 老來의 걱정은 도모지 업서질테다

이러케 說明을 해주니까 S가

『그럼면 자네는 왜 어서어서 마누라도 엇고 아들도 낫코해서 實行準備를 아니하나?』

『위선 그럴 資本이 잇서야지』

하고 따잡어 못는것이다 입때까지 내가 조롱바든 앙가품을 한거번에 하자는것이다

나는 웃지도 안코 이러케대답을 하엿다

『망할것! 패-니 말만 밋처바-』모레가 새로난놈 돌이니 와서 떡이나 먹게』

나는 차저가기로 約束을하고 갈렷다가 가벼운 포켓을털어 선사감을 사들고 S를 차저갓다

미상불 그날 제돌재비를 하는 맨 끄레놈으로 부러 시작하야 네살 여섯살 여덟살 어떠면 그러케도 二三六八의 偶數로 間隔이 골른 나는 위선 그것을 歎服하엿다

市外의 납작한 草家집에서 젊엇슬때 그러케도 溫性스럽든 S의夫人은 그草家집처럼 늙고 찌부러젓다——겨우 스물아홉살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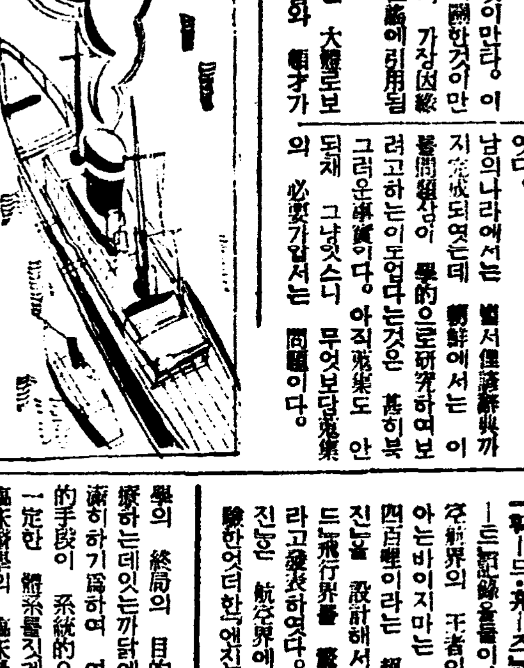
그 답답한 그리고 요란스러운 自家用幼稚園에 두어時間 드러안젓다가 나오는 나는 정말로種牛를 생각지아니할수가업섯다

或 아이를안고 門밧게 나서서 나의 도라가는 뒤태를 바라보는 S夫婦는 去勢한軍馬를 생각햇슬는지도 모른다 (끗)

海外短信

西曆二千年前 王宮을發掘

【巴里發同盟郵信】佛蘭西의考古學者『모-리스·파로-』敎授의一行은 前日부터『시리아』에서 考古學的調查에 當하여잇섯는데 이와가티『이라크』國境『텔·하리리』近傍의沙漠에서 紀元前 二千年에 이르『마리』王朝의 壯大한 宮殿을 發掘 하기에 成功 하엿다 王宮은 古代의『시리아·마리』族都市의 中心이되여 노피十六呎에 이르는 두거운 石壁으로 分配하여잇다 總數는七十에 達하는室房과 『이스탈』女神의 神殿으로 되여잇다。『바비론』王國이 強大되여『마리』王朝도 마침내 雄王『함라비』때문에 滅하엿는데 그宮殿도 破害되여 잇섯다 그러나 侵略者가 가지고 行하엿든 什器、家具를 비롯해서『마리』王族의 功績을 稱讚하엿든 碑文等 여러가지로 貴重한것이 發見되엿다 그中에도 興味을 잇그는것은 王宮의浴室인데 湯水가 兩便에서나는 設備로되여잇고『쇠-와』까지부러잇다는것이다 그것과『마리』族의 子弟를 敎育하엿다고生覺되는 敎室인데 生徒의안젓든 椅子가 煉瓦로된 外全部가 今日의 學校와 틀림이업다



臨床醫學의 機能과 醫療制度管見

❶ 李錫松

一、緒言

吾人 人間은 自然界에서 生活할뿐만아니라 人間社會에도一定한 關係을가진 生活을하고잇다 그럼으로 人間을 對象으로하는 科學인 醫學은 生物學的人間을 對象으로하는 同時에 社會的人間을 對象으로하게된다 醫學中에서도 主로 生物學的人間을 對象으로하는 醫學은 基礎醫學이고 生物學的人間과 社會的人間을 同時에 對象으로하는 醫學은 臨床醫學이다 醫學으로서 社會에 接觸하는 重要한 面은 臨床醫學의 臨床過程이다 臨床過程의 實踐은 一定한 醫療制度미테서 營爲된다 다시말하면 臨床醫學을 運用하는 醫師는 一定한 醫療制度미테서 物質的報酬를맛고 患者의 疾病을 診療한다 勿論 臨床醫學의 機能은 基礎醫學과 臨床醫學自身의 發達에 左右될것이나 그 機能의 發揮는 臨床過程의 順條如何에 달릴것이다 臨床過程이 順條로 營爲되려면 臨床醫의 實力과臨床醫와 患者를 接觸시키는 醫療制度의 合理的構造가 必要하다 그럼으로 臨床醫學機能의發揮는 結局 醫療制度와도 關係를가지고잇다 이에 臨床醫學의 機能과 醫療制度와에對하여 多少의卑見을써보려한다

二、臨床醫學의 臨床過程

醫學은 吾人人間의 疾病을治療乃至 豫防하는것이 重要한目的이다。이目的을 達하기爲하여 여러가지 다른科學即 解剖學、生理學、生化學、病理學、細菌學、藥理學等을綜合하여 研究한다。此等諸種의科學은 吾人의 疾病을 治療乃至豫防하는데 重要한 基礎知識을 供給하는 醫學研究의 基礎的學問이다 그럼으로 이것을 特히 基礎醫學이라한다 醫學發展의眞髓는 實로 이基礎醫學의 發達과 沈滯를가리한다 基礎醫學을 土臺로한 內科學、外科學、眼科學、耳鼻咽喉科學、產婦人科學、精神病科學、皮膚泌尿器科學 物理診療學等 患者의 疾病을 直接으로 第一線에서 取扱하는 醫學을 가르처서 臨床醫學이라한다 여러가지 分科로 分類되여잇스나 各分科學은 그에共通되는 一定한 臨床過程을 지나 各各 그任務를遂行한다、臨床醫學의 終局의 目的은 疾病을治療하는데잇는까닭에 이治療를圓滿히하기爲하여 여러가지 科學的手段이 系統的으로 實施되여 一定한 體系를지케되는 이것을 臨床醫學의 臨床過程이라할이可할것이다 疾病의 治療는 發生한 疾病으로因하여 생긴病的狀態를 生理的狀態로 接近 乃至 回復시키거나 或은進行하야 病的狀態의 惡化를 防禦하는것이다

그럼으로合理的療法을 施行하려면 그疾病의 本體를 明確히하는것이 第一條件이다 그本體의 究明은 그疾病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器質的及機能的異常即 疾病의 症狀을 分析 綜合하며 그것을 土台로하는데서 實現되다 이와갓치 病的症狀을 醫學的方法에依하여 分析綜合하는過程을 가르처서 診察이라고하고 疾病의 本體를 究明하는것을診斷이라한다 診斷으로 疾病의本體가 究明되면 이것을 基礎로 그疾病에對한 對策의 樹立即治療가 始作된다 이三者 即診察 診斷 治療가 臨床醫學의 臨床過程이다 이것이 醫學으로서社會에 接觸하는 가장 重要한側面이다 患者를 診察하는 第一階段은 病歷의 作成이다 患者或은 可及的 接近 하여잇는 保護者에게 그患者의 疾病에 關한 歷史를 물어記入한다 몬저患者의 氏名 年齡 性別 職業을記入한後 患者家族의 健康狀態特有한 疾病의 有無死亡한 家族의 死因 乃至 健康狀態等을 可及的詳細히記入한다 그다음에는 旣往症、即患者의 出生時부터乳兒期 少年時 壯年期 老年期等을 通하여 健康의興否와 疾病의有無를 記入한다 그다음에는 現症 即現在에잇는病의 症狀을詳細히 記入한다 病의始作은 어는때쯤되엿스며 發病은急激或은徐徐히 되엿는지 發病以來現在까지 엇더한症狀이 생기엿는지 等을 記入한다

第二階段은 物理學方法으로 患者의 身體를 一一히 檢查하는 理學的檢查이다 이것에는 視診、觸診、打診、聽診等을 行하여疾病의本體를 把握하려힘쓴다。

時速四百哩의 超「스피-드」機

【데트로이트發(同盟通信)】『휘-드·휴-스』라고하면 스피-드記錄을몰이나가지고 世界空航界의 王者이라는것은 다 아는바이지마는 同君最近時速四百哩이라는 超高速度의『엔진』을 設計해서 다시『스피-드』飛行界를 驚倒식힐 策戰이라고發表하엿다。『新設計의『엔진』은 航空界에서 일직이 試驗한어떠한『엔진』보담도 優秀하여저 昨秋내가 陸上機로시은 時速三百五十二哩의『레코-드』는 問題도되지안는다、新『엔진』을 裝備한 飛行機는 上昇力二萬呎、成層圈直下를 飛行하도록 設計되여잇다、언제 나느냐고? 何如間 돈이드는것인만큼 그러케 容易하게될것 갓지는안타、今秋의『크리-브란드』의에아·다-비-』에그 飛行機를 搭出하지는 안케다 目下 使造機를 搬出하기에 全力으로 周旋中인데 竣工되기는 來年春될것이다。그러나다 되기만하면 現今 내가가지고잇는 米大陸橫斷 記錄九時間 二十七分十秒가튼것은 당장에 突破할것이다、

讀者社交室

◀普通學校卒業한 朝鮮處女로서 年齡十五歲以上二十歲未滿으로理髮業에從事할 希望者는左記住所로問議하야주시기를바랍

高等理髮館求職係
慶南昌寧郡邑內

◀柳上杰兄의 住所를몰합니다 本籍全南靈岩郡揚岩里인대 數年前에 咸北甲山으로 가섯다는消息을 몰나鬱鬱하오니 누구시든지 柳兄의住所를 아시는분은此社交欄을 通하야 알려주시오며 옥本人이 新聞을 보시거든 알녀주시면 감사하겟슴니다

昌平 欲知生

◀露西亞語 獨學하라는 이에게告함 生에게東京橘書店版 八杉貞利編輯의『最新ロシヤ語講座』第一卷書籍目錄付 新本이有하온바讀者諸氏中 露語獨學코저冊을求치못하는이를 위하야 (初等人에게適當함)讓渡하라하오니 有意하신이는 左記住所로 內議하십시요 다른書籍과交換하여드리겟습니다 通知하실때 貴下의가진『小說』『詩』等冊名을 적어보내기를 願하며但外書籍은 不要

全北金堤邑新豐里二五六徐義煥

◀閑雅하야 讀書에適合하오며 庭園五十餘坪이고 素人宿屋을求할분은梨花町二五ノ五號로來問하시압 高工醫專、빠-스停留所까지宿屋에서約五分 李誠起

◀社交室로通하야 뭇고저하노이다 山間僻地에서 獨學하는靑年이오대 普通文官試驗科目을練習하고잇는中이옵시다그런대試驗科目이무엇인지알지못하며또地理歷史는 日本歷史뿐인지或世界歷史를受驗하는지下敎하여주옵소서勿論朝鮮總督府施行이옵시다 그리고選擇科目은受驗者選擇인지試驗施行當局選擇인지仔細히下敎하여주옵소서 慶南昌原 苦勞生 白

◀오-케-蓄音會社文藝部에뭇습니다 未安합니다만은 日前에發表하신映畫스토리-懸賞募集締切期日을 다시금五月二十日까지延期하셧다하심은 이미新聞紙上에주어알엇습니다 하오데小生은映畫製作에 만흔野心을가지고잇습니다 한데그募集水準이라고하실가요 規定이라고할가요한것을 多忙하신데未安하오나 朝鮮日報讀者社交室을通하여뭇사오니 이저再次公表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市內本町一丁目 無何生

◀左記書籍을 讓渡하겟사오니 希望하시니는 一次照會하시오 早稻田大學中學講義錄 前後期全卷 遞試社 專檢講座 物理、化學 同數學 改造社 世界大衆文學全集二十冊

市內安國町一七〇 金永一

★曆★

六月十三日(土) 陰曆己四月小 (廿四日)
丙寅·火·胃·成
●嫁娶裁衣動土上樑未時開市納財安葬啓攢에宜함
●小滿二十一日(舊初一日)
●芒種六日(舊十七日)

家庭醫學

姙産婦와 榮養

健康한乳兒를出生하는것과出生치못하는것도어머니의注意如何

至今으로부터四十年前뿌로이오니이라는醫師는 -姙婦는一定限度의食餌를給與한다 그러면胎兒가적어지는故로解産이容易할것이다。라고自己의信念에基하야各種의榮養素를適當히分配하야姙婦에게給與하니까胎兒에게는別影響이업섯스나母親은大端히衰弱하야分娩할氣力을喪失하엿다고함니다。勿論이實驗은失敗로도라갓지만이것으로보아도

健康한어린애를

나코母親도健全하라면母體와胎兒兩方面에多量의榮養이必要하다는것이判明될것임니다。

例를들면카로리-의問題이지만服部博士著『榮養과食餌科法』에依하면中等大의婦人의要하는熱量을二二〇〇-二五〇〇카로리-라고하면姙娠四五個月頃부터는二二〇〇-二五〇〇카로리-를더增加할必要가잇다고發表하엿습니다 따라서姙婦에게는消化하기쉬운食物을給與하야카로리-를늘이는것도重要한 한方法이지만 特히 必要한榮養素의補給도이저서는아니됨니다。

一般的으로말하면먼저胎兒는自己自身의細胞를만들기爲하야 또母親은子宮筋肉의增大와 胎盤形成을爲하야

多量의蛋白質과

無機質을要求합니다、特히無機質中에도칼시움은胎兒의骨骼과齒牙를만들기爲하야 多大하게消費되여그量은分娩末期까지에約三十瓦이든다고합니다。

그리고또비타민이지만비타민中에는B는胎兒의發育을助長할뿐만아니라母體乳兒의脚氣를防止하고D-는主로서칼시움과燐等의無機質의沈着을돕는데效果가잇습니다。또現在에는早産과 流産의原因으로서 이비타민缺乏之症이枚擧되여잇습니다。

그러므로健康한애를나키爲하여서는 此等不足하기쉬운榮養素를各各補給하야消化하기쉽고 카로리-가만흔食物을攝取하게하는것이지만『錠劑わかもと』中에는前記의

胎兒의成長素

라고할만한 蛋白質과 無機質、칼시움、及生物菌中가장 豊富하다고하는 비타민B를 비롯하야 A、D、E와 임덧의病狀을 防止하는데有效한 구리고기닌等이 綜合的으로 包含되여잇습니다、『錠劑わかもと』의效果로서、看過할수업는것은 이러한榮養素를補給함에 끄치지안코 나아가서 障碍되기쉬운 姙娠中의 胃腸과 腎臟의機能을强하게하야 消化吸收를돕고 衰弱을防止하는 各種의 活性酵素가 包含되여잇스므로이것이綜合的으로 作用하게되는結果로 體內機能이强化되여 榮養이充實하게되는故로 母體는自然히健康한乳兒를 出生할수잇슴것입니다。

幼兒의便秘

어린애기 便秘하면 곳 浣腸을行하는 사람이잇스나 이것은 생각할必要가 잇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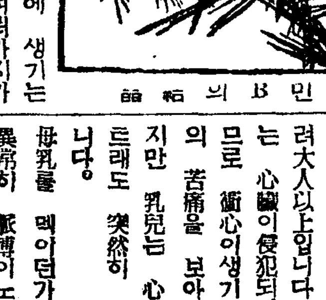
幼兒의便秘는 腸의蠕動性의弱한것이 主因이므로 浣腸을하여서는 勿論逼하지만間的에 腸과肛門에 急激한刺戟이잇서서 括約筋을 收縮시키는 故로浣腸하면 大槪習慣이되여 腸粘膜을 損傷할 危險이잇습니다。

가장 安全한療法으로 推獎할수잇는것은『錠劑わかもと』에 依한 自然便通法으로 이藥中에는酵素와 乳酸菌 그것이腸壁의 細胞組織에 活力을與하야 機能을 昂進식혀서 生理的으로 爽快한便通을엇게함니다。

至今부터 생기기쉬운

乳兒脚氣에 注意!

그容態와 簡單히할수잇는治療法



비타민B의結晶

母乳를먹은 乳兒時代에 생기는 病에는 消化不良其他여러가지가 잇지만 其中에도 봄부터 여름까지 急增하는 乳兒脚氣가 잇습니다

이病의 症狀은 大人의 脚氣에나타나는것 가튼動悸、痲痺、浮腫等外에도 吐乳라던가 綠便이라던가 體重이줄던가 오직그러한 症狀밧게나타내지안는 境遇가 만습니다、

動悸는勿論 大人과 同樣으로

心臟의 障礙이지만 衝心의 危機는 오히려大人以上입니다

卽大人境遇에는 心臟이侵犯되여 漸漸커저도므로 衝心이생기므로 그때까지의 苦痛을 보아 治療도速히되드래도 突然히 衝心하는까닭입니다。

母乳를 먹이던가 안아이르킬때 異常히 脈搏이 노피뛰고 呼吸이 거치러지는것은 그前兆인境遇가 만습니다。

다음에 乳兒脚氣의 徵候로서누구나 알지못해서는 안되는것은 吐乳綠便으로 거이附便이라고해도조흡니다。이것은 乳兒의消化力이衰하야 普通이면 二時間假量으로 腸에가는것이 三時間도 四時間도 胃에머물러잇스므로또膓도弱해저서

綠便

을내거나體重이順調로 增加하지안는일이만습니다、乳兒脚氣는普通말하는것가티 母親이脚氣로 그母乳를먹으므로 생기는것은 事實이지만統計上으로도 太半을占領하고잇지만 脚氣에걸리지안흔母親도 비타민B의攝取가 不足한境遇에도乳兒가 脚氣에걸리는、境遇가적지안습니다、治療로서는一般으로母乳를 버리지안흐면안될것가티 생각하지만 最近研究로서는 亦是母乳를繼續하야주면서 治療하는것이조타고하는것이 알려젓습니다 그까닭은斷乳後榮養에牛乳와重湯을써도 이것을母乳에比하면비타민B가적고 또카로리-도떠러지므로 充分한治療效果를期待할수업고 따라서治療로서도母親의授乳를繼續하면서그授乳中의不足成分을補給하므로서母子共히脚氣를治療함이라고하는療法이施行됨니다

그方法으로서는『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는것이 簡單하고 有效하지만 이藥은 豊富한비타민B를 비롯하야 脂肪、蛋白質、無機質의多種多樣의

榮養

素를包含하고 乳兒의衰弱한胃腸의機能을 强하게하는 十數種의酵素도 兼備하고잇습니다、그러므로 授乳中에母親이『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고 또乳兒에게도服用식히면 비타민B와諸成分의綜合效果로體內에榮養이充實하고母親의乳質이改善되는同時에乳兒도또그러한成分이補給되여消化機能도强해지는故로容易히그害를입지안코脚氣로부터救함을바들수잇습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東京芝公園大門內際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三百錠入千錠入의二種이一日分겨우五六錢(小兒에게는二、三錢)의廉價로發賣되여잇습니다、

療養實話

母親의 授乳로

乳兒脚氣가 생겻지만

(廣島) 中島和吉

나의妻는、昭和九年九月十一日에 初産하야三十三日後故鄕에서 廣島로도라와서 그後十日이지나어린애의얼골이蒼白해지면서、힘업는 소리로울기만하는故로、醫師에게診斷하니까 母親이脚氣이므로、母乳를 먹이지말라는말을드럿습니다。(中略) 注射하면낫는다고해서(中略) 注射를노니까、三四十分後에우름을끄첫습니다 그後도顏色이蒼白하야健康치못하야 젓을어더먹이면서、길러지만 그後도顏色이蒼白하야健康이衰해지고、母親의手足까지痲痺되여困難하엿스나 昨年九月頃에『家庭의顧問醫』라는 冊을보니까『錠劑わかもと』가 조타고해서 곳ミドリヤ藥局에가서사다먹으니까 곳痲痺가 낫고 어린애의顏色도조화지는것가터서 繼續하야 今日까지먹이니까 어린애는 大端히健康하여젓습니다 요즘은장롱속에 너허두면 혼자서꺼내먹으므로 다른곳에 감추어두지마는참으로 먹기쉬우므로 질겨합니다 (後略)

掛圖寄贈引換券を御活用下さい

小學敎育助成을爲한 優秀한敎授用 掛圖一百萬枚를 小學校에寄贈

『わかもと』一瓶마다『掛圖寄贈引換券』이부터잇스므로求하시는분은協力의意味로一枚라도업시하지말고小學校에寄附하여주십시요 그引換券을送付한小學校에 對하야掛圖를寄贈합니다。

詳細는東京芝公園十一號地敎育資料會에 照會하십시요

連載野談 (卅八)

布衣歎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그미인의눈물(十一)

개루왕께서 처음에 그총희랑의 변명을 듯는 그관원을 그미인의집에 보내실때는 아무다른뜻이업고 한번 그미인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시든것이엇다。

그런데 그관원이 속고 돌아온것을 아신뒤에는 아무리 잘시 스럽든일이라도 그속은것이 분하사 먼저 그남편이된 사나히를 잡어다가 분푸리를하시고 그래도 분이 덜 풀리시여 그미인조차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려고 잡어드리셧다。

그런데 그미인을 압헤 세워노시고 친히 보시매 과연 미인인것을 탐복하시게되엿다。

그래서 왕께서는 아가까지 그미인을 죽이든지 변신을 맨들러시든 생각이 천리만리 살어진것은 물론 그관원에게 하마트면 그런 미인을 빼길번한것까지도 아슬、아슬하게 생각하셧다。

그러나 이제는 그미인을 압헤 세워노시니 마음이 매우든든하셧다。

그뿐아니라 보실사록 귀엽고 사랑스러우신 생각이 간절하사 특히 사람을 잘알어보는 재조가잇는 늙은 궁녀를 불으사 그미인을 자랑겸 선을 보게하셧다。

이때 왕께서는 지극히 호탕하신 긔색으로 그 늙은궁녀를 향하야

『너보아라!。너 보기에는 어떠냐?。』

『참 어엽븐줄노 알외오。』

『호홍。그래、그래。그러나 어엽뿌기만하면 쓰나 덕성이잇서야지。또 보아라!덕성이잇나?。』

『덕성도 만히잇서 보이는줄노 알외오。』

『호홍。그러면 후궁이 되어도 부족할것이 업술가 또 자서히 보아라!。』

『지당한줄노 알외오。』

『그래?。』

하시고 왕께서는 매우 깃부고 만족하신 긔색으로써 그미인을 뚜러지게 보신다。

이때 그미인은 왕께서 늙은 궁녀를 부르라시는 소리에 어쩐지 마음이 찌르르하여젓든바후궁을 삼겟다는 말슴을 듯거되나 가슴이 메여지는듯 지향할수가 업섯다。

그리하야 그미인은 메이는가슴속으로 여러가지를 거듭 생각하다가

『죽지,죽어。죽은 송장이야。』

하고 이제는 메치못할 사정이나 죽기로 결심하얏다。

그미인이 아와가티 죽기로써 결심하매 오죽 원한이 되는것은 남편을 다시 못보고 죽는것이엿다。

그래서 어떤 꾀를 부리든지 남편을 만나도록 왕께 청하려고 생각하얏다。

그런데 이때 왕께서는 매우 부드러운 음성으로써

『애。대관절 네가 절개를 직힌다는것이 네 서방을 위하는 까닭이져?』

『그런줄로 알외오。』

『그럿것다。그런데 네 서방은 네가 임검의 식힌일을 속인 죄로 두눈을 빼고 돗대도업고 키도업는 널쪼각에 실어서 송파강에 띄웟다。아마도 죽어슬거야。그정상은 불상하나 그죄는 용서할수업는 죄로구나。그러고보니 이제 너는 서방이업는 계집이 아니냐。오늘부터 후궁이되여라。』

하시고 왕께서는 그미인의 얼골을 여전히 더뚜러지게 보시며 아주 은근하고도 다정하며 못내 길우워하시는 양이 곧손목을 꼭 잡으려는듯, 허리를 푹 꺼안실듯하얏다。

그미인은 속으로 남편을 만나볼 궁리를하는중 그 남편이 장님이 되어가지고 강에 떠나러갓다는 말을 듯자,아무리 그 남편을 위하야 범서부터 생사간에 결심한것이 굿세다할지라도 새로 정신이 앗득하야지며 붓 슬어질듯하얏다。

그러나 절개를 위한 독한 마음이 그 슬어지려는 몸을부축하매 새로 정신이 얼는 들며 목청을 가다듬고 흔연한 태도로서

『서방님이 필경 죽어거을 이 천한 몸을 어데 의탁하오릿가 그런데 상감마마의 분부가 지엄하오시거나 어찌 감히 순종치 아니하오릿가。그러하오나 지금은 계집으로서 다믄히 치르는 일노 몸이 대단 부정하오니 닷새 말미만 처분하오시면 천한 몸이라도분부대로 뫼시려함을 알외오。』

『너는 속이는 재조가 신통한데 미듬수가 업는걸。』

『설혹 속이려는 생각이 잇다하오들 이구중궁궐에서 어찌 생의를하오릿가 의심을 거두시기를 알외오。』

『참으로 그러라면 속는심 치고 닷새 말미를 주지。속는대도 닷새동안이니。』

하시며 왕께서는 그 늙은 궁녀를 안동하야 새로 처소를치고 머물게하셧다。

主催 野談同好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端午노리의舌戰三合

演士……庚秋岡·黃材景·申鼎言

野談과漫談의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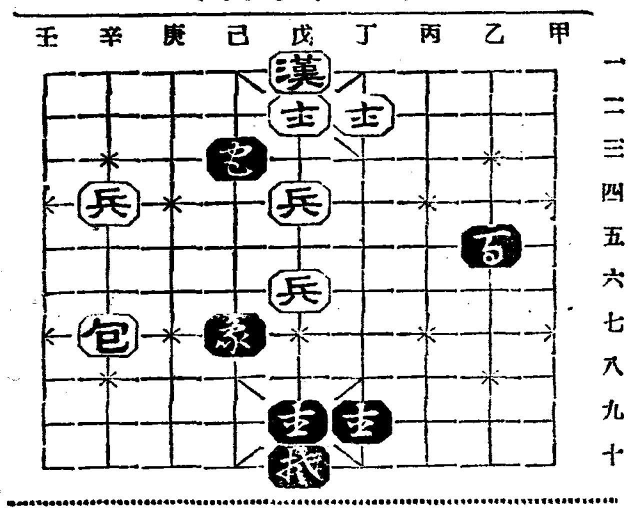
時日 六月二十三日밤八時(陰曆端午날)
會費 普通八十錢、學生六十錢(朝鮮日報讀者半額)
場所 公會堂

將棋名手對局譜 (九)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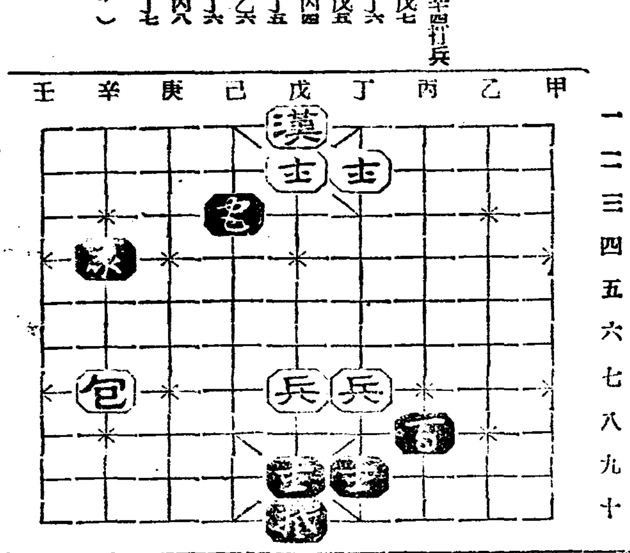
漢 李在鳳 楚先手 全于石

◀八十手圖▶



◀終局圖▶

(完)



十二日 (金曜)

◇午後六時三〇分 謠方指導(敎靑레코ー드併用)(二) 延專敎授 鄭 寅 燮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講演 〃船舶이야기〃 中央高普 沈 亨 弼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 南 善
◇同八時三〇分 愁心歌外 一、愁心歌 二、엮음愁心歌 三、寧邊歌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六、긴아리 七、경복궁타령 崔眞子 金秋月
◇午後八時五〇分 洞簫獨奏 一散調 二、새타령 柳 東 初 池 龍 九
◇同九時二〇分 名曲鑑賞(레코ー드演奏) 解說 朝鮮音樂家協會 桂 貞 植
빠이올린과管絃樂
빠이올린·후ー벨르만
西班牙交響曲 D短調……랄로作曲
管絃樂·위ー닌 필하ー모니
指揮

第一放送

◇午後六時 (鹿)鄕土童謠의노래 鹿兒島川邊郡加世田
◇同六時二五分(東)基礎英語講座 鹽 谷 榮
◇同七時三〇(東)講演 松 井 茂
◇同八時 (大) 寄席中繼 花柳소비메外
◇同九時(東)講談 神田 山陽

十三日 (土曜)

◇午後〇時〇五分 (大)輕音樂 一、하ー모니카合奏 二、섹쓰폰獨奏 關西學院하ー모니카뻰드 指揮 三宮 貞三 피아노 武澤 武
◇同一時 野球試合實況『鐵道對全大邱』ー京城그라운드에서ー
◇同六時三〇分 謠法指揮(敎靑레코ー드併用)(三) 延專敎授 鄭 寅 燮
◇同七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時事解說 朝鮮日報社主筆 徐 椿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三) 崔 南 善
◇同八時三〇分 라디오·드라마 『안해의秘密』
─配 役─
英俊……河一瑱
그의妻(貞淑)……李英惠
그의동생(英純)……林景淑
光浩……宋芝園
中國料理商……文 烈
下女……池蓮玉
演出 李 效果 楊 放送劇協會
◇同九時一〇分 赤壁歌
◇同九時三五分 音律 一、鄕唐交奏 二、仕舘風流 奚琴 鎬 奉 石 大笒 金 一 磐 細笛 李 點 龍 杖鼓 金 一 宇

一、赤壁歌 二、제비가 三、달거리 郭山月 郭明月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郎
◇午後零時五分 輕音樂
◇同三時三五分(東) 詩吟 大麻惰之
◇同六時 幼兒에의옛날이야기
◇同六時二五分(東) 生活改善講座 棚橋源太郎
◇同七時三〇分(東) 歌謠曲 山野巡 伴奏日本빅타管絃樂團
◇同八時二分(東) 舞臺劇 市川左團次外
◇同九時 時事解說

十四日 (日曜)

◇午後零時五〇分 놀냥外 一、놀냥 三、뒷산타령 蘇 完 俊 韓 仁 學 柳 開 東
◇同一時二〇分 洋樂(延專主催 第五回全鮮中等學校懸賞音樂會入賞者)
◇同二時 野球試合實況ー全京城對全大邱ー京城그라운드에서ー
◇同六時三〇分 맨돌린合奏 一、行進曲『希望』 二、舞曲D마즈르카……사뷔오作曲 E가보트……카라ー제作曲 三、夜曲……코펠리ー니作曲 四、圓舞曲『森林의逍遙』……아렛시오스作曲 이탈리안·만돌ー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田榮澤
◇同八時 『農民의저녁』 營農改善座談會 京畿道産業技手 朴 善 日 同 農會技手 南 基 徵 外三人
◇同八時四〇分 農村美談 『豚皮의宴』 ● 申 鼎 言
◇同九時〇五分 農夫歌 丁南希 趙相鮮
◇同一〇時 朝滿交換放送ー京城으로부터ー 歌謠曲 (DK懸賞當選作品) 一、農村振興歌 (가) 文尙俊作詞 洪蘭坡作曲 (나) 林潮作詞 李冕相作曲 (다) 車轍東作詞 同 二、동백꼿필때…林一影作詞李冕相作曲 三、鴨綠江 康承翰作詞 洪蘭坡作曲

第一放送

◇午前一〇時四〇分 (大)講演 松井房治郎
◇同一一時一〇分 農民데ー實況
◇午後〇時五〇分 辻音樂
◇同二時二〇分 浪花節 木村忠衛
◇同二時五〇分 獨唱과管絃樂 獨唱 鈴木富美子 大阪라듸오、오케스트라
◇同三時二〇分 新日本音樂
◇同六時 DK아이들이야기 元町小學校兒童
◇同七時三〇分 孔子廟祭典樂 台南市서中繼
◇同七時五五分 俚謠 熊本縣玉名郡橫島村
◇同八時三〇分 落語 蝶花樓馬樂
◇同八時五〇分 라지오드저마 淸川玉枝外

藝苑消息

日活監督部에 李炳逸氏入社

일즉이 朝鮮映畫界에서 活動하다가 渡東하여 東洋發聲映畫撮影所에서 多年間토ー키ー에對한研究를거듭하여오든中 今番日本映畫界의巨匠인 阿部豊氏와日活本部、鈴木紀子女史의推薦으로 日活東京撮影所監督部에 入社하게되엿다。

方今 菊池寛氏原作『戀愛と結婚の書』阿部豊氏監督아래 助監督으로 셋트撮影中이라고한다。氏는 아프로、토ー키ー藝術에對한 理論의 把握의實踐的、研究와 理論의 把握은、우리朝鮮映畫界를爲하야、만흔活躍이잇슬것이다 寫眞은同氏

映畫短信

더욱더 노파가는 英國色彩映畫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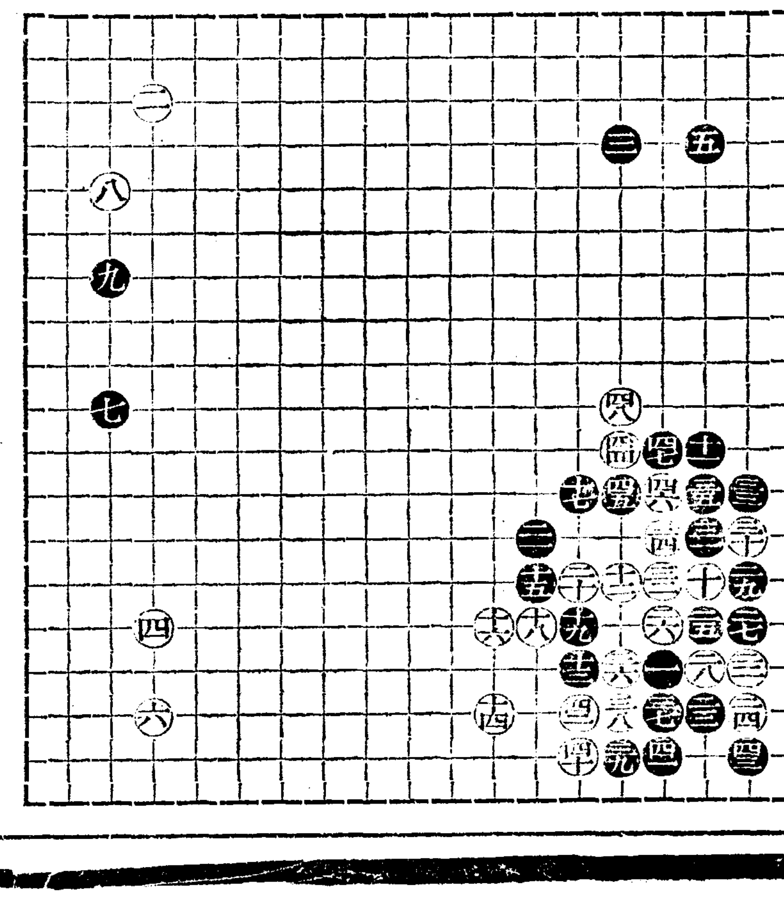
에룬스트·루비취가 론돈에 到着하얏슬때 色彩映畫를 支持하는 뜻으로 言明하얏는데 이제 英國서는 色彩映畫熱이 더욱더 노파저서 테크니칼라會社에서는 英國에잇서서 最初의 라보라토리를 設計할 뜻으로 發表하얏다。同社의 總務 케이·하리슨氏는 英國의 名映畫會社와 이미 二十四本의 테크니칼라 필류어를 契約하얏다고 하는데 第一回에는 뉴·월드·픽튜어스의 로바트·T·권의 作品『스포트、오브、킹』로서 론돈、필림撮影所에서 撮影된것이요 第二回는 론도필림作品『아리빠아의로렌스』로 될모양이다

圍碁對局譜 ─3─

本社主催

白 柳鎭河
黑先 丁奎春

三二	●	乙의十二
三三	○	丁의十三
三四	●	丙의十二
三五	○	戊의十六
三六	●	丁의十七
三七	○	戊의十七
三八	●	戊의十八
三九	○	己의十八
四〇	●	丁의十八
四一	○	己의十七
四二	●	乙의十八
四三	○	戊의十一
四四	●	戊의十二
四五	○	丁의十二
四六	●	丁의十一
四七	○	戊의十



蔡極文氏評日

黑은 南角白三點을 擒捕하고 白은 巳의十五六黑二點을 搾取하니 利害를 校計컨 彼此一般이다 白이 戊의十一로 黑을 斷하야 形勢를 權衡함은 誤算이아닌가 白自身包圍가 獨念됨으로 黑中央進出이 頗有美績일가하노라

武田發賣品

アペチン錠

아 페 친

胃腸病

胃腸의活力을增强식혀

食慾增進
消化良好
便通調整
體力强化

아페친錠은 消化하거쉬운蛋白質 脂肪、多量의 비타민B及 비타민D의 基源物質、植物性인슈린狀物質、스타레인、레치친、구리고ー겐、갈시움、鐵等의有効成分을 含有하고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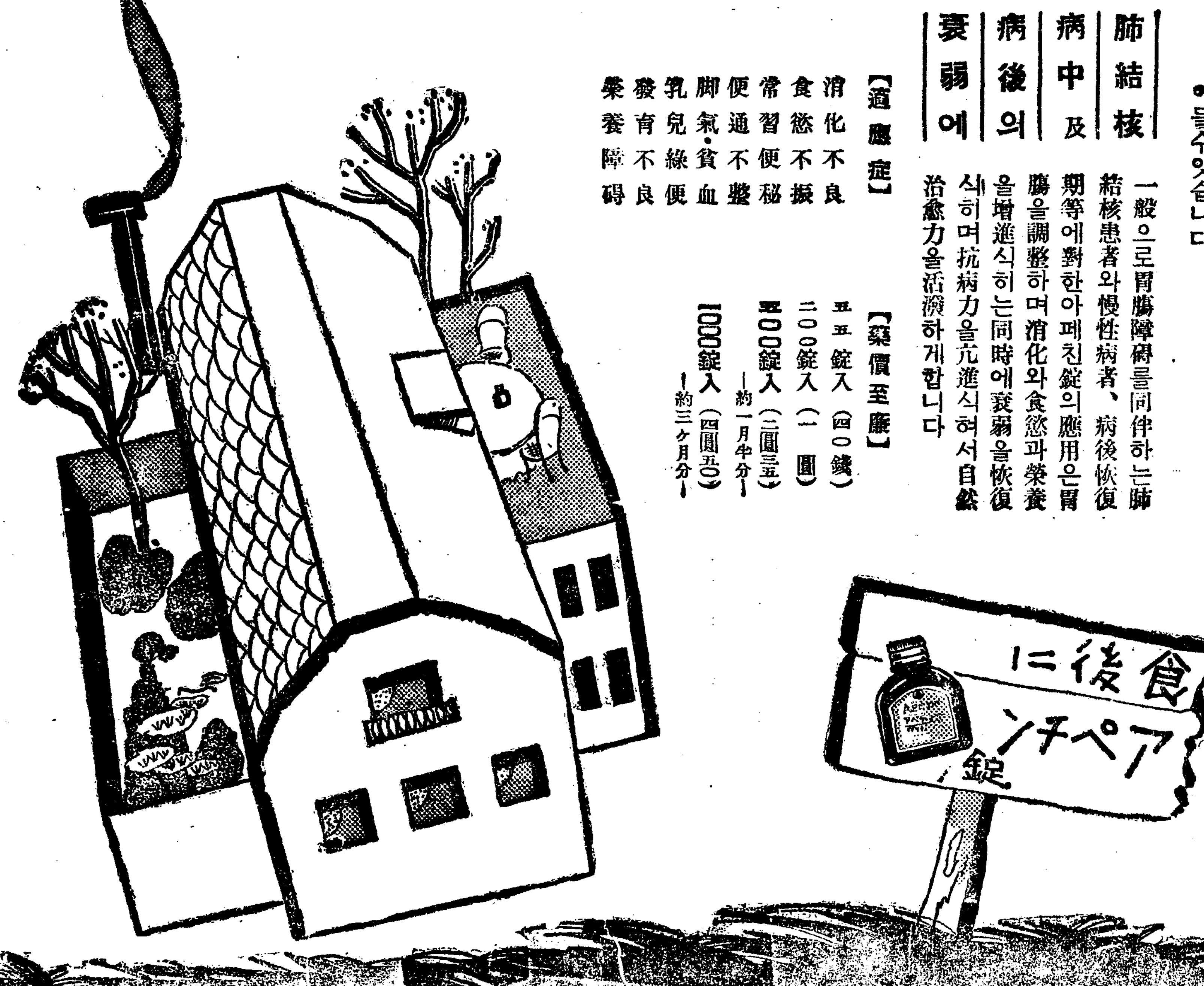
아페친錠의效果는上述의有効分에依하야證明할수잇습니다 卽 此等有効分의作用이 渾然綜合되여 胃腸의運動機能을亢進식히고、그緊張度를더하며、消化液의分泌를잘하게하고、胃腸本來의作用을充分히發揮식히며그必然的効果로서 食慾은振起하며、消化는良好하며、便通은調整되며、榮養은充實하야心身의好調를어들수잇습니다

肺結核 病中及 病後의 衰弱에

一般으로胃腸障碍를同伴하는肺結核患者와慢性病者、病後恢復期等에對한아페친錠의應用은胃腸을調整하며消化와食慾과榮養을增進식히는同時에衰弱을恢復식히며抗病力을亢進식혀서自然治癒力을活潑하게합니다

【適應症】
消化不良
食慾不振
常習便秘
便通不整
脚氣·貧血
乳兒綠便
發育不良
榮養障碍

【藥價至廉】
五五錠入(四〇錢)
二〇〇錠入(一圓)
五〇〇錠入(二圓三五) —約一月半分—
一〇〇〇錠入(四圓五〇) —約三ケ月分—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關東代理店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旱魃은갈사록滋甚
耕地千餘町步狼狽
秧苗는枯死秧板은龜裂되여
三平面九千農民恐怖

【咸興】함주군삼평면(三平面)은 이십칠개리에 이천칠백호 주민 구천여명의 대부분이 농사로생업을 삼고잇는바 금년초부터계속되는 한재를 넘어 논입천이백여정보의전부가말라모까지말라버리고논마다 귀열이되여 이대로 강우이계속되는날에는 생도를 차즐수업슬뿐외라 그런처아니하여도 작년도에도 흉작으로 타격을맛고 이면농민들은 전전긍긍하는중에서 오직하날에 구름만처다보고잇다고하며 벌서식량결핍에 구제를요하는 주민이 약칠십여가구라한다

상인의 리익으로 빨미암어 실삼사원정도로、또는 거기에 고리의 장리가 부터서 그들의손에 들어가게됨으로 사실상 여름에는 비싼곡식을 사서먹고 가을에는 농사지은 귀리 보리 감자등을 원치지라하여 렴가로 호농과 상인에게 주게됨으로 금변에도 또한 뵌손만 쥐게될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임으로 그들은 벌서부터 곡가의 앙등을 바라보고 장탄식을 마지안는다고하며 금년에는 또한 몃집이나 그곳을 떠나게될는지 한심하기 짝이업는 처지라고한다

箕林里에天然痘
一家三名感染

【平壤】천연두로 한가족중 세명식이나 쓸어진뉴ー스가잇다 평양부내 기림리(箕林里)칠십삼번지포목상 왕정남(王情南)의집에서는 지난달 이십일경에 차녀시화(時化)(三)가 돌연히 발열하여 진찰한결과 천연두로 판명되여 이래가료중이든바 어십오일에는 장남 시윤(時潤)(五)이 감염되엿고 지난사일에는 장녀 시열(時烈)(七)에게까지 감염되여 세명이 한거번에 쓸어젓다

금번 정기종두때에 빠지지안코 종두까지 햇는데 이집에는 출입하는 고객이만흔관계로 감염된관계라고 볼바 계속은전연 불명치안타

소관 대동서에서는 부근일대에림시종두를 시행하는등 매소동을연출하고잇다

黑橋市下水口整理

【黑橋】황해도흑교시(黑橋市)에는 아직하수구정리가 되지못하야 위생상으로나 교통방면으로보아 실로유감으로생각하여 오든바 현면장조긔원(趙基元)씨의 노력으로 지난봄부터 공사에착수하엿는데 금후에는 완성될것이라한다

安邊德源文川엔
到處에서물싸홈
豐兆의깁붐도넷날꿈

【元山】금춘이래 천후가 순조로워서 묘의발육등이 량호하야 일반 농가에서는 수무족도하는 안변、덕원、문천(安邊德源文川)일대 한발의곡향은 십여일전까지도 별반이상이 업섯스나 돌연 이앙긔를 당하여 한발이계속하여 우려중인데 하날에는날마다 운무가 덥히여잇스나 비가 나리지안허 갈질만 나게하는바 이로인하야 압날의 한발계속을 우려코 도처에 물싸홈이 시작되어 안변등지에서는 삼십여명 농민의 대량검거 사건까지 잇섯스며 물근이 가장 심한곳은 천수답이 적은곳으로서 안변위익면(安邊衛益面)일대와 덕원부내면(德源府內面)과문천도초면(文川都初面)지대라는바 근일중 비가 보이지안흐면 중수를 예상하든 한남의 곡향도 크게 우려된다고한다

百餘作人에同情
三千餘圓代納
李炳漢氏의美擧

【咸興】함주군삼평면(三平面)의 대거주 리병한(李炳漢)(?)씨는 작년도자기의 소작인일백사십여명이 경작하든 논팔십여정보의수세중 소작인이물게되는 반액 삼천칠백여원을 작년흉작으로 소작인의 수확이적어 생활도 어려울것을 짐작하고 금번에 그수세 삼천칠백여원을 자진대납한바 전기소작인일동은물론 일반주민들도 아름다운 지금세상에 드믄일이라하야 칭찬이자자하다고한다

江陵郡內到處에
傳染病이續發
當局은豫防注射實施

【江陵】강릉군 사천면일대에 장질부사가 창궐하야 그면내 삼천여명에게 예방주사를 시행하야 방역에 힘쓰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병은 당국의 활동을 비웃는듯 방역선을돌파 군내 아곳저곳에서 발생하야 강릉군은 완연 전염병의 포위하에 잇는 늑김을주워 자못 인심이 흉흉한데 팔일현재 전염병환자의발생과 사망상태는 다음과갓다

面名	病名	現患	死亡
沙川面	腸窒扶斯	五	一
江東面	同	五	一
玉溪面	同	一	—
新里面	同	一	—
城德面	파라지브스	一	—
計		一四	二

이상과가튼데 경찰당국은 강동면내에서 이천팔백명 옥게면에서 팔백명 신리면에서 일천오백명 도합 오천팔백명에게 예방주사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잇다한다

崔氏烈行記念堂

【殷山】근세희유의 렬녀문이하나세워젓다——평남순천군 자산면청룡리(靑龍里)에 잇는 김문(金門)에서는 요사이 자긔동리에다가 실로보기드문바 렬녀문(烈女門)을 하나 세워노앗다는바 그렬녀로 추존바든 주인공은강동군(江東郡)원탄면 원흥리(圓興里)에사는 최씨(崔氏)(五七)로서 그는본시 십륙세시에 전긔김문에 출가하엿스나 불행이도 겨우 이변을 지난 십팔세때에 남편은 그만 죽어버리엿다 정렬이 국건한 전긔최씨는 잠시도 죽은남편을 잇지안코 이래홀로서 일생을 보내엇다 그래서 그저지못한 렬행(烈行)을긔념키위하야 전긔 동중에서는사

오백원의 성금을도아가지고 지난팔일동교회당 정문락성식(正門落成式)을 거행하엿다한다

金作里女史紀念碑
汗浦教會와幼稚園에
所有土地를全部提供

【開城】개성고려정삼백삼십일번지(開城高麗町三三一番地)김작리여사(金作里女史)(六?)는 한포교회와유치원을 위하야 시가삼천원의토지를 회사하야 교회당국자들은물론 일반사회에서도 칭송을마지안는터이라는데 한포교회는 교회내에서 유치원까지 경영하는바 긔본재산이 업는이만치 곤난중에잇든바 금번김작리녀사의장거로 동교회와 유치원은 긔초가반석가티 든든하게 되리라하며 김작리녀사는 이미십여년전에 남편을사별하고 독신으로 근검저축하여 재산을모흔분으로 교회문전에 송덕기념비까지 교인일동이 건설하야지난구일에는 성대히제막식을 거행하엿다한다

原因氏名未詳의
壯年男子縊死

【金村】지난십일오전열시경에 파주군금촌(坡州郡金村)으로부터 북해이궐로저정 공동시장(公設市場)으로가는길가 들림목에서목매여죽은시체를 지나가든농군들이발견하고 곳소관아동주재소(新堀在所)에 계출하므로 이급보를바든 동주재소조야(早野)순사는 당지금촌의원장 신태영(申泰永)씨와 동면신서긔(愼齊紀)를대동하고 급거출장하여 검시한바 사십이삼세의장년으로서 이미십여시간이경과한것이 판명되엇다는데 소지품은 목면의복두벌과 박승근(朴乘根)이라고 인장(印章)을 가젓슬뿐으로 그의신원과사인(死因)은아직알수업서서 동주재소에서는방금사방으로조사중이라한다

九百餘名兒童中에
九五%蛔虫保有
洪原署管內의調查

【洪原】함남홍원경찰서(洪原)에서는 관내 보통학교아동 구백실팔명에대하야 회충유무를 조사하엿는바 놀나지말나! 회충을 가진아동은 구할오부로 팔백팔십구명이나되며 일인당 회충소유가 구십팔개의 다수에달한다고한다

染病魔去益跳梁
感染者八百餘名
其中死亡者도二百餘名의多數
平南道五個月間統計

【平壤】평양십팔만부민을 비롯하여 백오십만부민전부를 떨게한 평남의전염병마는 금춘이래맹렬한세력을 발휘하여 작년보다 훨신만흔 희생자를 내이엇다 일월일일이후 오월말일까지에 발생한전염병환자는『장질부사』이백이십팔명을 필두로 성홍열(猩紅熱)이백구명 두창(痘瘡)백사십명『지푸테리아』백팔십사명 류뇌(流腦)사십삼명『발진지부스』사십사명 적리(赤痢)이십사명 합계 팔백륙십구명의 다수에 달하며 그중에서 이백일명의 만흔 사망자를 내이엇다 이것을 전변동기에 비교하면 발생은 백오십팔명 사망자는오십이명의 증가이므로 위생당국에서는 전마력으로 방역에 노력키로 되엿다

죽은母親을思慕
墓地에서殉死

【泰川】어머니가 도라가셧다고 애통한끄테 묘지에가서 어머니를 따라죽은 희세의효자가 평북영변에 출현되엿다 이제 그대강을 소개하면 영변군봉산면고성동(寧邊郡鳳山面古城洞)에거주하는 박용운(朴溶運)(二?)은본래 온후한사람으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야 일반의 칭송이자자하든중 지난오월말에 어머니가 병으로인하야 도라가시매 그아들박용운은 천지가 꺼지듯 피눈물로 애통하든끄테 지난삼일은 슬픔을 이기지못하야 그근처어머니의분묘에 차자가서 어머니를 부르며 일상묘를안고 죽어 지하에서라도 만나보기를 결심하고 자긔손으로 목을매여 죽어버렷다한다

地方人事

▲金成國氏(下碣金融組合理事)長津金融組合專務人事文書長 支局來訪

西平壤外廓에다
大操車場設定
普通江橫斷의直線鐵路新設
土地뿌로커ー의暗躍

【平壤】소화십삼년에 완료될 서조선의 척식개발선인 만포선(滿浦線)의 영업으로 개시하게되는때에는 려객과 화물의 폭주가 잇슬것은 필연의사실이므로 평철당국에서는 서평양일대에 대조차장(大操車場)을 설치하여 쇄도하는 화물의수송난과 조차난을 완화해소하고저 이미 필요의 토지매수공작을 완료햇는데 경성철도국에서는 남교동(南橋洞)에서 보통강을 횡단하여 굴원동(屈原洞)을지나 서평양역을 련결하는 연장 이천오백미돌의 신선철로 산설안을 금년도상의회에 계상키로결정햇는데 의회의협찬을지나 금년도부터 착공할예정으로 목하 철도연선의토지매수를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선로 부지매수에 대하여 토지뿌로커ー들은 발서부터 암중비약을하여 부근일대의 토지가격은 무서운 형세로 폭등을보게되엿스나 이때문에 지장을당할 리유가업서 토지수용령을 적용하여서라도 긔정방침을 행하여매진할터이라한다

粟價까지昂騰
火田民極困境

【元山】보리고개를 압두고 비참한생활을 이어가고잇는 덕원군풍상면과풍하면(德源郡豐上面豐下面)산간일대 일만오천여의화전민들은 초근목피와 만주속으로 살어가는형상인데 요지음만주속가가 다른두가를따라 앙등되고잇서 해마다호농과 상인들에게서 장리(長利)를 내여먹는 형편에 더욱부채를 질머지게되여잇는 한심한처지인데 그지방은 원산과 거리가 먼까닭에 원산에서 현재 식이원에삼십전정도하는 황속도 운임과 중간 (…)

龍興江流域開畓
當局許可를躊躇
水利統制와河川改修關係로
八十餘請願者焦燥

【咸興】함남영흥군억기면(永興郡億岐面)일대에는 룡흥면(龍興面)에 종래부터국유지(國有地)의 상태며로전작은 매년수확개무의 상태며토지는 해마다 황폐하야 가는형편이다 이로인하야 관계지주들은 각하 부분적으로 개답할뜻을 가지고 도토목과에 하천사용(河川使用)안수로 개척공사허가원을 제출하고 엇는데지금까지 신청된 건수는 리덕후(李德垕)의 아십팔명을 비롯하야 필실이명에 예정관개면적은 오십여정보의 광범위에 달한다 이에대하야 한남도토목과에 례하야 그허가여하를 물어보면 아것은 산미정책상 대단히 조흐나 해구역은 룡흥강개수예정구역이속하고 잇슴으로 개수이후에 수황(水況)하신(河身)등이 변함에따라 혹은 이미개답한논에인수할수업슬는지도 몰으겟스며결하야 당국의 수리통제(水利統制)에인하야 허가할수업스리라는것으로 래도를 결정하지안코잇다고하는데 그개답은 그생활상은 직접동지방주민들의 생활문제에 관계되는 중대한문제로그진전여하가 매우주목된다고한다

在滿朝鮮兒童
作品展覽會
本社支局後援

【新京】재신경 아동문화연구회(在新京兒童文學研究會)에서는 본보신경지국후원으로 오는칠월이십일、이십이일 량일간을두고 신경시내에서 재만조선아동작품전람회를 개최하리라는바 그요항은 아래와갓다한다

一、時日 七月廿、廿一日(兩日間)
一、場所 新京市內
一、出品期日 七月十日까지
一、出品場所 新京梅枝町四丁目廿番地 新京兒童文學研究會事務所

◇出品要項
一、種目 圖畫、習字、作文、童謠、童話、手藝品
一、點數 隨意(校名、學年、氏名記入)(可及的團體로할것)
(但、在滿朝鮮人初等生徒作品에限함)

鰮群近海로接近
一日數千樽漁獲
凶漁에울고잇든咸南沿岸의
漁民俄然喜欣雀躍

【咸興】온어군이 오기는왓스나 너무먼바다에잇서서 어업자들은 도저히 손을대일수업는 형편으로 대공황을 일우고잇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후 수온의놉허짐에따라 점점 연안(沿岸)에까지오게되여 지난팔일부터는 금변들어처음으로 일천통이상을 잡엇고 다시 칠일에는 이천십통이라는 대풍획을 뵈엿다는데 이로부터 본격적으로 잡게되리라고하며 최일까지 루계는 칠천칠백삼십통이나 되다는데 근심에저저잇든 어민들은 기뻐날뛴다한다

第一回全朝鮮
自轉車競技會
論山支局後援

【論山】론산에서는 례요령단으로 가정을복하야 지방발전급시민위안을 위하야 황용성흥행부(黃用性興行部)의주최 본보론산지국후원으로 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를 개최한다는바 그규정은 다음과갓다한다

一、日時 六月二十二、三日兩日間
一、場所 舊河川埋立地廣場
一、申請期日 六月二十一日까지

◇賞品
一、男子一流一着 優勝旗一個自轉車一臺
一、男子二流一着 優勝旗一個時計一座
一、男子三流一着 優勝旗一個內衣一件
一、女子一流一着 優勝旗一個
一、小兒一着 洋服一着

南原
經濟大講演會

▲時日 六月十四日午後二時
▲場所 南原廣寒樓
◇演士 本社主筆 徐椿先生
◇主催 朝鮮日報社南原支局

仁川
全朝鮮씨름 選手權大會

▲時日 六月二十三、四、兩日間
▲場所 松峴里日用品市場左側廣場
▲參加 二十日까지 仁川體育會로
▲參加金 每人前三十錢式
◇主催 仁川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仁川支局

清亭
創立六周年記念 全朝鮮씨름大會

▲時日 陰五月八、九、十、三日間
▲場所 清亭萬夫堉廣場
◇主催 清元勞働組合
◇後援 朝鮮日報外一分局

今日 十三日
全朝鮮中等校個人庭球戰

◇時日 六月十三日正午부터 崇專『코ー트』에서
◇主催 崇實專門學校體育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愛慾의彼岸 【20】
李光洙 作 金康穆 畫

二〇

밥상이 들어왓다。

밥을 먹는 동안 김장로의 눈은 끄님업시 문임에게로 갓다。문임도 김장로의 눈이 자조 제게로 올라는것과 그 눈에는 소롬이 끼치는 무엇이 품겨잇슴을 느낄때에 그것이 진저리치도록 실혀서 밥을 씹든 입을 수이고 잠깐 생각에 잠기는 일도 잇섯다。

김장로는 문임이가 먹는 모양이 귀여워서 견딜수가 업섯다。두부와 뭐가과 도라지와 고비와, 모도 맵고 짜고 시고 맛나는것이라고는 업지마는 어떠캐하여서라도 이것을 맛나게하여서 문임에게 만히 먹이고십헛다。

『이것 좀 먹어보렴으나』

하고 김장로가 혜련에게 권하는것은 문임에게 권할 핑계를 엇으려함이엇다。가끔 김장로는 문임에게 마음이 팔려서 혜련의 존재를 이즌 일까지 잇섯다。

『아부지、인제 가세요。저 해 보세요』

하고 혜련이가 김장로의 저고리를 들고서서 재촉할 때에도 김장로는 입고십지아니하엿다。언제까지라도 문임과 함께 여긔 잇고십헛다。

『어、참、해가 다 갓군』

하고 김장로는 혜련에게서 저고리를 바더입고 문임에게서모자를 바더들고 절에서 떠낫다。

해는 벌서 마차봉 마르레기에 올라안고 압골작이에서는활혼의 자주 안개 피어올랏다。시커머케 빼만 남은 수락산이 석양을 잔뜩 밧어가지고 무시무시하도록 검누른 빗을 발하엿다。

낫보다도 물ㅅ소리는 더 큰것 갓햇다。선뜩선뜩한 긔운이 골작이로 돌앗다。혜련과 문임은 으스스함을 늣겨 지정이엇다。그것을 이기노라고 두 처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엿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아페 잇스니
슬픈 일을 만히 보고
큰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허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야
항상 비출 보도다』

하는것이엇다。

김장로는 두 처녀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칠칠한 콩작길을 걸어엇다。저도젊엇을 적에는 이러한 노래를 듯고 감격한일도 잇던것을 생각하엿다。그러나 자긔의 아페는 오직 갈사록 어두움의 그늘이 지터가는 길이 잇슬뿐이오『하늘 영광밝음』이 보이지아니하엿다。오직젊은 여자의 포근한 육체만이그리운듯하엿다。문임의 영혼에서 흐르는 노래의 뜻보다는 그고운 목소리가 그리웟다。김장로는 김고김고 어둡고 어두운 지옥의 그늘로 제 영혼이 한량업시 나려가는것을 보는듯하엿다。

혜련과 문임은 예날 로라를 영어로 부르고, 또 『플루뻴스』를 부르고 이모양으로 몃 노래를 부르다가 그것조차 잠잠하엿다。노래ㅅ소리가 끄친 때에 김장로는 속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를 반복하여보앗다。그리고 근사십년 부르든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앗다。그러나 거긔서는 아모러한 감격도 솟지 아니하엿다。김장로는 마치 멋고 잇던 무엇에서 갑작이 떨어진듯 한 무서움 석긴 슬픔을 깨달앗다。

『나의 유집을 바라보는 내간』

하고 김장로는 반성하려하엿다。어두움의 그늘로 밋그러져 들어가는 저를 뭇듭어보려 하엿다。그러나 김장로 몸이 흠고 피곤한모양으로 그의 혼에도 탈력이 업는듯하엿다。김장로는 다시 마음에 문임을 껴안음으로 새 긔운을 어덧다。

草木도肥料를주어야크게結實・사람도補藥을써야健康長壽

天下名藥
春夏節과百補丸

◆가을은 금풍이소슬하야 天高馬肥하니補藥을아니써도健康하여지난時節이라이때에 補藥을쓰난것은더욱 健康키爲하야 쓰난것이고
◆春夏節은 春陽暴暑에땀이나고、기운이술고、뼈가녹는듯하고、체중이생기고、맥이업고全身의 神經이마르니
◆이러케人體에害가만흔時節에난必히 補藥을써야하며 이時節의補藥은單方으로된 補陽藥이거나체중약이거나淸凉藥이거나는 不完全합니다 全身이다弱하여지는때인故로全身을百補하난 가장完全한百補丸을春夏節에난必히服用하여야합니다 皮骨이根本的으로튼튼하게되며 피가말가지며神經이굿세게됩니다
◆廣告로만알지말으시고事實 봄볏과찌는더위에對항하야健康히지내시려면 百補丸을써야만합니다
◆百補丸을잡수시면 더위타지안코、체증안생기고日射에因한神經病안생기고 心身이편하고 잔病안생기고눈이발가지고기운나고 性神經이조와지고 피부가조와지고머리의비듬까지 업서젓다고감사의 말을하는사람까지잇섯습니다 이러케까지百補하는약이업니다

健康을爲하야
名勝地避暑가効大할가 百補丸內服이効大할가

◆팔자가조와서 할일업스신人士는 數百圓돈을드려면서 名勝地로避暑를가지만은
◆事業에多事하야寸暇업는人士는 百補丸을內服하시고 宅에서 享樂行樂하시난것이 身體健康上몃倍낫습니다

百補丸

一代金特製 一劑拾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周旋하시면周旋人게一劑無料進呈

참眞正第一 조흔補藥

◆性慾이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체증속병과神經衰弱으로苦生하는사람
◆恒常氣力이업고活氣가업는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症狀이오니 一日速히 第一完全하고第一조흔補藥百補丸을服用하시와 씩씩한更少年이되시요

이에서더조흔補藥은更無함

地方에는아즉 信用잇산 特約販賣店을求하지못하야 地方販賣所를設置하지못하엿습니다尙允——

總督府商工獎勵館과 全鮮十三道道廳經營인 商工獎勵舘과商品陳列所에서 宣傳도하여주시고販賣도하여주시게되여잇사오니 道廳所在地 附近人士는 右記所에서買用하서도조습니다

(本社로 直接注文하서도送料는 本社가負擔합니다)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堅志町五・五(前中央日報社隣)(振替京城二三五番)(電光六五三番)

"中國通貨制度"
◎……過去十個年間變遷

一九三〇年五月十五日에는 二個의 政府令이 發佈되야 銀市場에 또 큰 打擊을 주엇다 第一은 輸出禁止이며 第二는 外國銀貨의 輸入禁止이다 一九三〇年의 世界新産銀生産高는 約二億四千八百萬온쓰 銀市勢의 低落에도 不拘하고 中國、印度兩國의 銀消費는 比較的良好하야 印度가 引受한 量은 九千四百五十萬온쓰、中國의 消費는 一億二千三百萬온쓰이엇다 中國은 一年을 通하야 約五千萬온쓰의 銀塊를 輸入하엿는데 그中 約二千萬온쓰는 印度支那로부터의 供給으로 同國은 二月一日以後 一피아스톨=二〇法의 比率로서 完全히 銀本位를 抛棄한것이다。

×

一九三一年은 世界各國에 亘하야 가장 恐慌이 猛烈히 暴威를 떨친 때이다 그러나 中國은 世界的經濟不況의 圈外에 잇섯다 即中國의 部貨物價指數가 依然 上昇運動을 繼續하든點 만가지고도 明白하다 어떠튼지 世界的不況의 波紋이 中國에 襲來치아니햇든것은 勿論 銀市勢의 續落、中國通貨의 外貨에 對한 低位에 잇섯다 通貨價値의 暴騰低下는 換物傾向을 促進하고 資金의 海外逃避와 外國品의 輸入激增은 巨額의 輸入超過를 招致하엿다 그當年에는 銀行業과 關稅에 關하야 大改革이 斷行되엇다 即 二月廿八日에는 銀行法이 南京의 立法院을 通過、八月二日에는 銀行의 納所得에 對한 課稅法이 發布되고 또 七月二十五日에는 銀行券發行稅에 關한 法律이 發令되고 關稅에 關하야는 먼저 多年懸案의 釐金稅의 廢止와 國內關稅의 廢止가 斷行되엇스며 다음에 六月一日에는 輸出稅의 全般的改正이 實施되엇다。

×

前年에 未曾有의 低價를 出現한 世界銀市勢는 繼續하야 低迷步調를 不絶하고 倫敦銀塊는 低價十二片으로 市勢記錄의 一四九三年以來의 低價로 崩落하엿다 市勢의 低落은 勿論 銀貨의 暴落은 中國의 一部銀山을 閉鎖케하야 當時의 世界新産銀生産高는 一億九千六百萬온쓰로 줄엇다 英領印度는 一年間에 三千五百萬온쓰를 또 支那는 續續二千萬온쓰에 達하는 所持銀을 賣却하엿다 一面 世界의 銀消費는 顯著히 줄고 印度는 一年間에 겨우 五千七百萬온쓰、中國은 五千九百萬온쓰를 消費하엿슴에 그첫다。

×

銀市勢의 續落은 勿論 重大한 關心을 惹起하엿는데 이로 因하야 適宜한 對策이 招致되고 世界的經濟不況을 防止한다는 點에 잇서서 一時的이나 中國에 好影響을 주엇다 그러나 中國의 國內經濟狀態는 반드시 良好하다고는 말할수업섯다 一九三一年에는 上海事件이 생겨 上海及 그近郊의 經濟的損害는 十五億弗로 推算되고 여름에는 洪水가 揚子江流域一帶를 侵襲하엿스며 一面으로는 滿洲國의 獨立은 經濟的으로 보드래도 매우 큰 問題이엇다 그러고 世界的不況은 中國의 商品輸出量을 顯著히 減少케하고 따라서 그銀의 輸入能力은 減殺케하엿다 一九三二年中에 海外로부터 上海에 輸入된 銀塊는 겨우 二千八百萬온쓰에 不過하고 同國政府는 同年中에 約二千六百萬온쓰의 銀을 輸出하엿다 다시 印度는 一千萬온쓰、支那는 一千百五十萬온쓰의 銀을 輸出하엿다 이 當年의 世界新産銀生産高는 一億六千五十萬온쓰 各各減少하야 銀貨를 賣却하엿다 輸入國인 中國의 銀輸入이 激減한것은 世界銀市場에 二重壓을 加하고 銀市勢는 新低價로 崩落하엿다。 —(續)—

朝鮮內旱魃念慮濃厚
米價高續出로 京城糧米不足
精米業者原料求得에注力
中間端境期稀有事

旱魃念慮는 去益濃厚하야 米價는 逐日奔騰을 거듭하고 十二日仁川期米先限은 前場에 三十二圓五十九錢이란 高價에 飛騰되고 正租도 銀坊主 九錢四厘五毛이며 朝鮮內各地正米도 二十錢乃至五十錢의 突飛高를 演하야 天井不知임으로 奧地의 正租貯藏者의 賣惜傾向이 去益濃厚케됨을 딸어 京城精米業者는 原料正租를求得키어려워 市中의 一日平均糧米需要千石의 供給에 不足을 告하는터로 仁川에 堆積한 正米三千餘萬俵에 着目하고이것을 京城에가저오고저 하는中인데 六月中旬에 京城의 糧米를 他地로부터 가저오고저함은 中間端境期로서는 稀有의일이라고한다

秋節期가빨르면 結實不充分念慮
今後移秧된다드래도

昨今 農民은勿論全民衆的으로人心을 焦燥케하는旱魃이 이대로繼續하다가는 今年의農形에는全面的으로影響이 미칠것이라는것은 누구나推測하고 잇는바이나 이天氣는一層市場에 敏感히作用하야 米穀價는 連日昂騰하고잇는터인데 問題는當場의旱魃보다도 今年의季節이例年보다 十日乃至十五日이나 느젓는데 이번의旱魃로 移秧이더느저지다가만약 秋期에가서 節期가 그만큼 느저지지안코 多少라도일르게온다면 結實이不充分하여全般的으로減收를免할수업슬것이라는것이다

工業組合 制令遲延
當局者奔忙으로

朝鮮의工業組合令制定은 昭和六年以來의 懸案이오 近時中小工業振興問題乃至統制問題의 解決에當하야서는 工業組合을 基調로할時期에 入하얏슴에도不拘코同法令의制定은 遲遲不進捗인채로 放任되엿섯이다 右는 最初昭和九年度부터 施行할豫定으로 殖産局에서 立案을進行하얏던것이 財源削減으로 放置되고 十年度로되어 本年度에는 基準法規만이라도 公布케할意向이엇스나 産業調査會其他의 事務繁忙으로 所管課가 奔忙하야 그대로잇다 工組와 商組令에對한 商議의答申과 如함은 昭和八、九兩年에 提出되엇고 工組設立의 準備工作도 民間에잇서는 着着進行되어 輸出檢査의 實施와 如한工組가할事業도 實現되어 지금에잇서 同法制定의 遲延은 財界關心을 刺戟코잇다한다

米運貨協議會
京城大阪各觀備

朝鮮米運貨의協議會開催에對하야 大阪米穀會는 廿一日 大阪에서 朝鮮穀物協會聯合會는 二十七日 京城에서 各各開催하게다고關係方面에 招請狀을 發하엿슴에 對하야 船會社方面에서는 出席與否에 對하야 未定으로 關係會社間에 協議中인데 大阪의 協議會에 重點을두고 이곳에出席할方針이나 廿七日의 京城穀聯協議會에 對하야도 體面的으로 出席할方針이라고한다

對滿通商擁護法
調査會發動承認

【東京電話同盟】 滿洲의 日本品輸入防遏에 對抗하야 通商擁護法發動을 決할 關稅調査會는 十二日午後一時半부터 中央會議所에서 開催하고 會長馬場藏相의 인사가잇고 直時 議事에 入하야 最近의 日本品輸入防遏의 現狀을 議題로 大藏省山田主稅局長、外務省松島通商局長等이 提案理由及 對滿洲通商擁護法에 就하야 詳細說明하고 委員間에 政府原案에 甚하야 報復具體案에 對한 審議를하고 結局이것을承認한다는 旨를答申하고 午後五時散會하얏다 이에依하야對滿通商擁護法發動準備는 成立이되고 그時機는 今後의 外交交涉에잇서 滿洲가依然日本品에對한 高率關稅 配定制等 不當處置를 撤回치안는境遇에는 即時發動하기로 되엇는바그時機는 同委員會에서 政府一任으로되어잇다

京春鐵道가 自動車統制
全部買收할方針

京春鐵道의 營業開始에 依하야 江原道內及 春川、京城間의 乘業뻐스、트락크의 統制는 當然하게될것인데 京春鐵道自體가附帶業務로 自動車兼業을 할수잇게되야 結局 此等 自動車業을 買收케 될모양인데 此等의 買收에 잇서는 京畿、江原兩道警察部가 進키로되고 또 業者도 買收에 應할準備가 잇다고 提議한모양이므로 뻐스、트락크의 統制는 結局 實現할것으로 觀測된다

在滿金融合作社
中央銀行이買收

治外法權撤廢에 伴한滿洲의在滿朝鮮人金融機關인 滿洲金融合作社는滿洲國中央銀行에 買收讓渡키로決定되엇는데 合作社는 金融會에依하야 各社滿、鮮人의庶民金融을 疏通하야 農耕資金을 非營利的으로 融通을受하고잇든 것이만큼 右中銀에의 吸收는在滿朝鮮人의 金融梗塞을 招致할念慮가잇서서 總督府外事課에서도 事態를 重大視하고 愼重對策을 講究中이라한다

"朝鮮酒釀造統制"
먼저 地方別促進工作
◇……稅務監督局方針의內容

朝鮮酒의 釀造石數는 藥酒、濁酒、燒酎合計二百萬石에 達하고 그 業者는 全朝鮮四千有餘에 達하얏는데 그製造法은 不衛生이나 依然한것이이서 品質向上、製法의 改善과 如함은全然不顧이오 業者間의 競爭이 激甚함으로 이것의 統制가關係方面으로부터主張되던바 各道에서 麯子統制는 이미八年以後 實現되고잇슴으로 納稅關係로斯業에不可分的 關聯이잇는 稅務監督局에서는今春以來朝鮮酒釀造의 統制問題에 着手하야 地方別로 統制促進케 할工作을 開始코잇다 業者의孤立이만흔 京城稅務監督局管內에서는 가장積極的으로 燒酒統制의例에 倣하야 大資本으로부터 資金援助를 어더가지고 業者總合을 計劃코저 三井關係等과 聯絡을取하야 地方別로 工作을 進코잇다 그런데 業者中에는 近時의農村好轉으로 經營이 良好한者는 一齊히 反對하고 過般來 總督府에 陳情運動을 試하고 잇스며 各地의 輿論도 財閥統制反對를 主張함으로그形勢가 重視된다

水組用水의枯渴
中部朝鮮、湖南等地

全朝鮮의 旱魃念慮는去益濃厚케되엇는데 特히 中部와 湖南의 水不足은 逐日憂色이 深甚케되어 水利課의 調査에依한 貯水不足의 水利組合은 中、南部만도 如左하다한다
▲忠北=蓮堤水利、明岩堤水利는 모다 大旱魃을 念慮코잇고安南水利等도 渴水
▲忠南=全般的으로 用水不足인데 舒川水利는 特히 深刻
▲全北=東津等의 大水利를 除하고 笋南、望雨、廣石、助村等 道內各水組가 모다用水不足
▲全南=黃山、本良兩水利가 特히 不足이오 其他도 前年의 旱魃地는 今年도 用水不足을告하고잇다 其他旣報와如히平南 京畿、慶北도旱魃 念慮濃厚하다그러나 平南、全北等의 局部를除하면 大體植付用水는 供給될모양으로 其後의維持用水가 憂慮되고잇는바 迷信的으로 今年은大凶作을 맛는다는 憂色이濃厚하다한다

生産價暴騰
減産과 細育高로
◇……橫濱市勢七十圓高

【橫濱電話通】 早場春蠶減産豫想으로 國內事情强氣化와 米國情勢好轉 株式一齊高로 大勢를 暴騰되고 特히 細育生絲品不足에 依한 奔騰으로 市場人氣沸騰하야 軟派踏物殺到로 活氣橫溢되고 三、九九四俵로 賣買高를 示하얏다 實物도 適品薄으로 買方이 傍觀하야 商談이 안되고 前場中八〇俵 賣買뿐이엇다 前二節은 帳簿整理로 立會延期이엇다

昨年末免稅地
五千百十町步

昨年末現在의 全朝鮮免稅地(荒地、開墾荒埋築等除外)는 合計五千百十町 地價三百八十萬四十五圓、地番數二萬九千四百五十八筆 稅額五萬七千百二十一圓으로 이것을 前年에 比하면 七百二十町步 地價十七萬一千九百六圓의 增加인데 免稅額은 地價低下로 一千九百十九圓이 減少하엿다고한다

內國郵便爲替受拂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 五月中의 內國郵便爲替受拂件數는 七十四萬八千四百三十件 金額二千三百七十八萬九千九百三十圓으로그 內容을 보면 振出件數 三十七萬八百七十一件 金額 一千百九十六萬五千三百六圓 拂渡件數 三十七萬七千五百五十九件 金額 一千百八十二萬四千六百二十四圓이엇다고

農事改良 資金利下
二厘五毛의引下

一般金利引下에 따라서 總督府의農事改良과 肥料關係의 低利資金도 利率을 引下하여야할 것은 當然한일로 其間考慮中이든바 東拓과 打合이되여 來七月一日以降從來보다二厘五毛를 引下하여 一般貸付에는 五分九厘五毛로、農會關係는 五分一厘五毛로 하기로되엿다 그러고旣往貸付된것도 七月一日以降은 前記의利息計算으로 改訂될터인데 旣往의 貸付된資金으로 利率의改訂을 볼것이約一千萬圓에達한다

米日爲替續騰

【京城十一日發同盟】 十一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九弗四十四仙으로五仙高 買二十九弗四十一仙으로四仙高

▲東京爲替(十一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ノ七 買 二十九弗十六分ノ五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ノ一 買 一志二片卅二分ノ三

▲大阪爲替(十一日)
對米 賣 二十九弗十六分ノ七 買 二十九弗十六分ノ五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ノ一 買 一志二片卅二分ノ三

民有林更生會

民有林更生會에서는 十二日 午後四時부터京城商議에서 協議會를 열고 過般總督府에 陳情한 民有林에 低資融通의 經過報告와 更生會今後研究事項을協議할터이라고

公設市場賣上

京城府公設市場의 五月中賣上高는 六萬四十五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五千四十七圓의 增加이라고

市場	圓
花園町	二一、九〇九
龍山	一四、四五四
西大門	一三、二二一
麻浦	六、八五〇
永登浦	三、六一一

取引停止 (六月九日)

米穀商 京城府長沙町二〇三番地 方敬谷

經濟界消息

○東拓의蠶絲株式發行=東拓京城支店에서는 十四日의 農民記念日에 該當한다고하야 淸凉里의 農場에서 蠶絲株式을 發行할터이라고

○朝鮮織物協會染色部會開催=朝鮮織物協會에서는 十三日 午後二時부터 染色部會를 열고 理事選任의件 部會强化及 將來의對策、新入會希望者取扱의件을 附議할터이라고

○商工聯合會改組問題協議=京城商工聯合會에서는 改組問題에 對하야 十一日午後二時부터役員會를열고 協議하엿는데 改組案은 從來 聯合會는組合代表가 五十餘個人會員이 二百餘名으로 全體四分三으로個人會員이占하고 그結果 여러가지의弊害가 잇슴으로 이번에는 全部百五十餘의 組合代表者로서 組織하라고 計畫을樹立한바 不遠에總會를열어 決議하야 改造實現되리라고

經濟小感

○全朝鮮에 濃厚 丙子年이라 그런지 旱魃念慮
○工業組合令 制定放任을 攻擊 한다고 工業이업는 우리이니 日可日否 할것업다 해둘가?
○高公定價肉迫 蒼天아 굽어 살피소사
○朝鮮술 醸造統制를 稅務監督局이 工作
○四千餘業者의 死活問題 財閥統制는 底止할바를 모르는구나

今日財界 (十二日)

◆米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正米一石 / 正租(仁川)一等 / 一斤 一等 [illegible]
◆市中金融 / ◆株 朝新 東新 日産 / ◆商品 大阪綿絲 大阪人絹 大阪砂糖 [illegible]

株式 閑散裡에不變
商況【十二日】
前場閑散

迷에陷한 市勢는 今朝도 動意업시 閑散保合이엇다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三十錢高인 百三十四圓五十錢 鐘新四十錢高인百五十九圓十錢、日産十錢低인 七十二圓十錢에 各大引되고 朝新二十六圓八十錢、日魯七十圓丁이엇다

後場保合

後場은 生絲爆發을 別無好感이고 依然伸惱保合이엇스니 東新百三十四圓六十錢、大新七十三圓六十錢 日産七十二圓十錢 鐘新百五十八圓四十錢에 各大引

東新迷徨而已

東新은 百四十三、五圓이 먼저나오느냐 百卅五、七圓이 먼저나오느냐 그中間갈인 百卅三、四圓臺에서 갈팡질팡하며 仕手筋氣迷에싸이어잇는데 이제强弱雙方과保合觀은 大體如左하다
▲强氣=最近貿易을 懸念하고 增稅를 걱정하고잇는 모양이나 貿易은 國防充實을期하고 增稅는 藏相의聲明과가티 먼저줄것을주고 밧는다는方針이면 아모것도걱정할것이업스며 잘아리低金利로 强味로하야 株의利廻를 생각하면 株는賤할수업다 特히 東新의高價에서 六十圓低는 大押目으로서 今後三年後일지 五年後일지는모르나 지금보다二百圓高나三百圓高는 잇슬것이다
▲弱氣=市勢에는 依然活氣가 업다 增稅도意外로 그課稅額이 만흘것갓고 政府도相當히 積極的으로 革新政策을 實行하자는 意肚도보이니 株도樂觀할수업다 低金利도 實質的으로 反響되지안흐니 이以上積極的으로 買할수업다
▲保合觀=好材料와 惡材料를 세여보면 惡材料가 만흔듯하나 지금까지 말해온材料는 모다市場에 織入되엿스므로 下値가 支持되지만 上値도 別로없을것이다 東新이 無妙味이니 活氣한 變動은 업슬것이오 當分保合일것갓다

重工株難平買

事業發展時代에 處하야 市勢의變動을 問題삼을수업다 從하야 投資도 푸레미암과 配當을 對象으로 할것이오 市勢의變動그自體를 對象으로한 株式投資는 失敗도잇슬지언정 成功은 困難할것이다 今日重工業株가 만히 昂騰되엇슴으로 買할수업다는것은 市勢에拘泥된소리로 重工業의 發展푸레미암과 配當을目標로한 限今日의 重工業株는買할수잇다。 그러나 人氣市勢가아님으로 高價飛付買는 조치안코 押目을買할일인데 將來性이잇슴으로 押目이잇슬지 업슬지가 問題이다 그럼으로 押目을待하면 買遲케되기쉬우니 浮動株가적고 將來性이잇는 下値가 別無한 株이면 먼저 犧牲的으로 買하고 떠러지거던 難平으로 買할일이다 이意味에서 石川島、浦賀、帝麻、三菱重工、新潟鐵工과 如한것은 堅實有利한 難平買下株로 보인다는말이 잇다

業務規定改正申請

朝鮮取引所에서는 十日 取引員總會의決議에基하야 業務規定中 受渡不履行의境遇의 猶餘에關한 改正을 十二日 總督府에認可申請하얏다

實物前場取引 (取引高一六〇枚)

▲大同産業 ▲「도렉치」鑛業 ▲大龍力新 ▲朝日鑛業 ▲川崎造船 ▲宇治電 ▲東洋水港製糖新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 五分利債에는 前買氣가 潛在한듯하야 堅固이나 外債는 買滿腹으로 反落되고 六分半十錢低 五分半十錢低를示하고 佛貨債도 五錢引緩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一〇 ▲二回四分利 一〇二、五五 ▲二回四分利 一〇二、五〇 ▲佛貨四分利 一九八、一五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一〇 ▲第三五分 一〇二、三二 ▲二回四分 一〇二、三〇 ▲佛貨四分 一九八、三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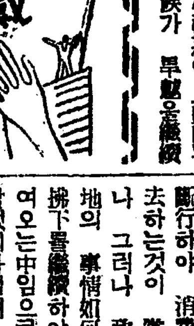
期米 最高價를 肉迫

前場爆發

昨後場阪地三十四圓三十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四圓三十三錢인 三丁反高를 據하고三十二圓四十八錢인 十六丁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稍漸高調로 七節四十七錢까지 昂騰하엿다가四十二錢으로 四十五錢에止場함을 伴하야 六節五十九錢의 高價를 示하고서 四十八錢까지 一押하더니 結局 阪止小戾에 加味되어 四十九錢으로 四十八錢에場을 止하엿다

後場續騰

後場은 三十二圓五十二錢에 四丁高로 始場後 五十九錢으로 六十錢新高價에올러 本社調査最高公定價採算三十二圓六十五錢을 肉迫하고 六十一錢高價에 止場하다



㊑……東新잘팡질팡 떠러질것인지 올을것인지 氣迷만茫茫 ◉…鐘新도拂込、增資를 떠들어 百六十圓關門 떠나 주춤거린다▲떠들적에는 拂込을 안하는것이 鐘紡의傳統이오 高價는 山一證券에게 買拔을念慮가잇서서 高價飛付買警戒라고▲日産도七十二圓臺에서 保合而已▲이것저것 모두 시원치안타 그대로夏枯에入하는모양인가?

㊀……市勢는 日復日新高價를演出하야 아프로 最高公定米價도 不遠▲公定米價에接近한今日이만치 買方은 警戒自重、賣方은 防戰不怠▲公定米價란 法的으로서 그範圍에 버서나지안코려하는것은 人情의自然이라할수잇스나 天然의 아메는 人爲的의 政策이엇지 對抗하랴▲一點의 雲도업시 旱魃日이 農繁期에 直面된農村의 民心을 不安케하며딸아서 凶作後의 在米가 그다지넉넉지도 못하니 公定價의突破는時間問題

最高公定價가 反撥力을醸成

京城府二等米를 基準으로 最高公定米價를 決定한바三十二圓十二錢은 堂島市場의 標準米인 播準三等旭米로 換算하면 三十五圓十二錢에 該當하게된다그럼으로 現下堂島先限三十四圓四十錢臺는 公定高價에 距하기六十丁바게남지안헛다 그럼으로 買方은 警戒自重하야 旣히 買占한 石數만을 維持할모양이며 賣方은 公定米價의 接近을 唯一한信條로하야 防戰不怠하는 中이나 그러나移秧期에 直面된 今日의 雨上天候가 旱魃을 繼續[illegible]

政府立場一考
그러나拂下難

各地의用水不足의 悲觀을 呈하게하고 此重殘한農家는 實方針을又一層困迫하야今後端境期의 高價를 期待하고잇는狀態인즉 大勢의自然을 防止하는最高公定米價는 不可抗力이어쩔는지 市場의反撥力을 釀成하게되는 今日의 此際에서、十分保合하는때는 保合하겟스나 그反撥力이 얼마나 더强大할것을 足히 豫期할수잇다 果如何?

今朝의 各地市勢는 又復新高價를演出하야 東京은 三十四圓四十錢臺、大阪亦三十四圓四十錢臺의 高價를演出하고 當地는三十二圓五十錢臺의 高價를示함에至하엿다 이와가티 日日新又一新의 高價로 昂進함을보면 不遠한時日에 最高公定價格을 突破하기가 十常八九인즉 政府는此에對하야 如何한 態度로 나갈것인가? 그立場을一考하건대 米價의 暴騰으로 一般消費層에 非常한打擊을 與하는今日에 勿論爲政者로서 政府米의 大量拂下를 斷行하야 消費大衆의 不安을除去하는것이 當然하다고할수잇스나 그러나 政府는 벌서부터各地의 事情如何를딸아 非入札의拂下를繼續하야 饑饉을 救濟하여오는中임으로 何必入札에 할것이아니며 又는 今年米價의 反撥은 朝斷을 下問하고 旣히觀測하든바인만치 아즉도 數段高定을 남겨노앗다하여도 過言이 아님으로 政府가 大量拂下를한다假定할지라도 端境期를 아페두고 벌서斷行하지안흘것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反撥
空梅雨念慮로 人氣는 一氣로 五十錢暴騰高를 演하얏다 丸仁三等三十一圓五十錢 一等白米[illegible]

仁川躍進
人氣逐日昂騰을 不改하고 今朝는 定期의 奔騰을 移하야 一氣로 五十錢躍進高를 演하엿다 丸仁三等三十一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釜山上放
必需當用小口가 買漁활發으로 値頃觀으로 總傍觀人氣이오 市況이 極히閑散하나마 定期에伴하야 二十錢高唱이엇다 四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一圓二十錢

大邱續騰
繼續하야 取引이 閑散場面이나마 定期의 昂騰을 移하야 市場만은 十錢續騰인 四三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群山奔騰
旱魃念慮濃化와 期米의 躍進高를 天고 市勢一擧로 四十錢奔騰을告하얏스나 實物途絶로 取引은依然만치안엇다 ク三等三十一圓丁 四等三十一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錢

木浦暴騰
期米飛躍으로 人氣는 昂高되는一方 空梅雨念慮等으로 賣方은逐日煩强化하야 氣配一氣로四十錢暴騰을 演하얏다 丸ホ三等三十二圓丁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米 仁川 康益商店 光 株 金益證券

株式 期米 柳來櫻商店

金.銀.白金 地方注文代金引換取引 御送料先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②3939 振替京城234

仁川期米 福 吉村取引店

金.白.銀.金 賣 買 大陸商會 京城府 電話本(2)一三一大 地方注文 代金引換取引